www.stylechosun.co.kr

07

JULY 2026
vol. 305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rt + Culture



Cartier

CHANEL

COLLECTION MÉTIERS D'ART 2026

FASCINATING
EGYPT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Beauté légendaire
Necklace

vancleefarpels.com
1877-4128

omegawatches.com





Speedmaster

Iconic since 1957

SPEEDMASTER GREY SIDE OF THE MOON
Co-Axial Master Chronometer

Contents

JULY 2026 / ISSUE.305

10_미술관의 외피로 작동하는 문화 플랫폼, 무엇을 남기는가 63빌딩 단지 내에 들어선 퐁피두센터 한화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가 도시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묻는 사례다.

12_다른 시공간 속 모더니즘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KOREA FOCUS' 섹션에서는 모더니즘 물결이 한국의 예술가들과 어떻게 조우했는지 살피며, 이번 개관전의 의미를 더욱 또렷하게 해준다.

13_SELECTION 도시와 휴양지를 오가는 시즌의 선키스트 스타일링.

15_DEEP DIVE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 다이버 워치 셀렉션.

16_PRECIOUS HARMONY 올해 까르띠에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Le Chœur des Pierres)'를 통해 젬스톤에 대한 노하우와 커팅 및 세팅 기술을 선보인다.

20_THE SHOW MUST GO ON 마티유 블라지의 첫 공방 컬렉션, 2026 공방 컬렉션 쇼가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여는 갤러리에서 열렸다.

24_HERITAGE REIMAGINED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 속에서도 로에베는 역사와 혁신, 희소성과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왔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6_GET THE LIST 여름의 문턱에서 펼쳐진 찬란한 서머 아이템.

28_JOURNEY TO MEDITERRANEAN 여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투미는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는 특별한 팝업을 진행했다.

29_ORIENTAL GRACE 자연의 숭고함을 주얼리로 풀어온 키린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 베이징 자운헌에서 프라이빗 전시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을 선보였다.

30_SO FABULOUS!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한 여름밤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드레스 코드.

39_ART+CULTURE 이번 'Art+Culture' 여름 스페셜호에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술을 둘러싼 여러 층위를 동시에 다룬다.

40_확장된 지도: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과 도약 선구적 여성 작가 6인을 조명하는 지면 전시.

47_연결의 항해, 새로운 10년 롯데콘서트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회고에 치중하기보다 다음 10년을 향한 비전을 내세웠다.

48_지금 우리는 어떤 전시에 열광하는가 한국 근현대 거장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재조명부터 참여형 전시 공간 구성, 라이프스타일 숍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굿즈까지.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의 관심사와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50_마이너는 정말 마이너인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를 통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왜 여전히 '마이너'라고 부르는지, 오늘날 진정한 주변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한다.

52_AI 시대 속 '인간다움'에 대해 묻다 피할 수 없는 기술 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탐색하며, 그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시들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54_EXHIBITION IN FOCUS 올여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포착해온 사진 거장들의 전시가 관람객을 만난다.

55_REMEMBER THE EXHIBITION 전국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는 김홍도부터 페르난도 보테로, 동시대 한국 작가들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무대로 삼은 예술가들의 개인전이 펼쳐진다.











올해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 (Le Choeur des Pierres)'는 젬스톤에서 시작된다. 메종이 엄격한 품질 기준 아래 엄선한 젬스톤의 순수함과 컷의 우아함, 비율의 정밀함을 고루 갖춘 약 1백30점의 피스로 구성된다. 사진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팬더 모티브의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객원 에디터 양혜연 yheny90@gmail.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khy@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jh00@gmail.com **디자인** 나나바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 GRAFF.COM

GRAFF
BUTTERFLY



1



2

서울의 새 랜드마크, 퐁피두센터 한화

미술관의 외피로 작동하는 문화 플랫폼, 무엇을 남기는가

한때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였던 63빌딩 단지 내에 들어선 퐁피두센터 한화는 단지 새로운 예술 공간의 등장이 아니다. 퐁피두는 처음부터 건축적 파격과 제도적 개방성을 내세운 공공 미술관으로, 이후 파리 본관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와 결합하는 네트워크형 미술관 모델로 확장되어 왔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가 도시 안에서 기능하는 방식 자체, 그에 따른 주도권의 배치를 묻게 한다. 서울은 이미 국내 장수 아트 페어 '키아프(Kiaf SEOUL)'가 글로벌 브랜드 '프리즈(Frieze Seoul)'와 협업 노선을 구축한 이래 글로벌 미술 플랫폼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하며 여러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전시와 시장, 기관과 브랜드가 동시에 맞물리는 이 구조 속에서 퐁피두센터 한화의 등장은 문화 네크워크의 판을 달리 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

퐁피두센터는 처음부터 미술관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외벽을 숨기지 않고 배관과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렌초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건축물은 문화 기관이 권위와 은폐의 장치가 아니라 도서관, 공연장까지 품은, 시민을 위한 개방적 플랫폼임을 물리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읽혔다. 1977년 개관 당시 '파리의 역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적 문화도시 한가운데 가장 전위적인 미술관이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혁신의 상징'은 다른 국면을 맞는다. 문제는 더 이상 건물의 파격성에 있지 않았다. 핵심은 현대미술의 생산과 유통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화했다는 데 있었다. 작품 가격은 상승했고, 보험과 운송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대형 미술관들이 경쟁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전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공공 미술관은 점점 더 단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파리 본관이 컬렉션과 브랜드, 큐레이션의 중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다양한 도시와 결합시키는 네트워크형 구조가 점차 확대됐다. 혁신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방대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 결과 퐁피두는 점차 도시와 기관, 자본, 전시 네트워크를 연결해 작동하는 문화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다. 파리 본관을 중심으로 하되,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관광도시와 결합된 장기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브뤼셀에서는 현대미술 기관과의 협업형 공간을 실험하며, 상하이 웨스트번드에서는 장기 협력 기반의 전시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퐁피두는 글로벌 네트워크형 플랫폼으로 해외 여러 도시에서 기반을 넓혀왔다.

1 서울 여의도 63빌딩 단지 내에 들어선 문화 예술 공간 퐁피두센터 한화의 건물 외관. 63빌딩의 별관·상업 시설 영역을 대규모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가 '빛의 상자'라는 콘셉트로 설계를 이끌었다. **2** 퐁피두센터 한화의 4층 옥상. **3** 퐁피두센터 한화의 로비에는 큐비즘적 조형 언어의 확장을 보여주는 레몽 뒤샹-비용의 청동 작가 '대형 말'이 설치되어 있다. Photo by 고성연

'빛의 상자'로 서울에 등장한 파리발 브랜드 플랫폼

사실 외관이 점점 흉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파리에 갈 때마다 거의 습관처럼 퐁피두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한국에 퐁피두의 세 번째 해외 거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환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애정이다. 심지어 여러 도시에서 저마다 퐁피두를 유치하겠다며 경쟁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 어안이 벙벙했다.

서울은 도시 브랜드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국립중앙박물관만 보더라도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 문화 인프라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부족하니 더 가져와야 한다'는 프레임 자체가 구태의연한 과잉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난 5월 말,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가 설계를 이끈 퐁피두센터 한화를 직접 보면서 인상이 조금 달라졌다. 미니멀한 조형 언어, 한강변과 63빌딩이라는 도시 맥락, 기존 컨벤션 시설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빛의 상자' 개념은 건물이 도시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미술관 언어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다른 도시 맥락 안에서 다시 번역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직은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인상도 남아 있지만, 조경은 네덜란드의 걸출한 조경가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야외 정원으로 구성되고, 내부 역시 동선과 조명이 비교적 정교하게 짜여 있다. 과장된 제스처 대신 기능과 경험의 균형 쪽에 무게가 실린 공간이다.

2층과 3층에는 2개의 대형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제1전시실은 층고 7m의 더블 하이트 공간으로 퐁피두센터 소장품 전시를 진행하며, 제2전시실은 메자닌을 갖춘 복층 구조로 개관전 이후 한화문화재단이 기획하는 동시대 전시를 선보이는 자리다. 4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과 레스토랑이 마련된다.

큐비즘을 다시 읽는 방식

핵심은 이 공간이 무엇을 담아내는가다.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오는 10월 4일까지)은 퐁피두의 20세기 미술 컬렉션 가운데서도 큐비즘을 중심으로 한 핵심 작품군을 서울로 옮겨온 전시다.

큐비즘이 탄생한 파리를 중심으로 1907년부터 1927년까지의 전개를 폭넓게 조망하는 이 전시는 분석적 큐비즘, 살롱 큐비즘, 오르픽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전후 변형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적으로 조망하며, 한국적 맥락과 공명하는 'KOREA FOCUS' 특별 섹션이 추가되어 모두 9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로비에는 큐비즘적 조형 언어의 확장을 보여주는 레몽 뒤샹-비용의 청동 조각 '대형 말(The Large Horse)'이 배치되어 있다.

잘 알려졌듯 큐비즘은 '재현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20세기 미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원근법을 해체하고, 대상을 다면적 구조로 분해해 화면 안에서 재구성했다. 이후 후안 그리스, 로베르 들로네, 알베르 글레이즈, 페르낭 레제 등 다양한 작가들이 합류하며 국제적 운동으로 확장된다. 아르코미술관 관장 출신인 퐁피두센터 한화의 임근혜 전시 총괄 디렉터의 말을 빌리자면, '현대미술의 기원을 돌아보는 전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관전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1907), 조르주 브라크의 초기 분석적 큐비즘 회화, 후안 그리스의 정물 연작, 페르낭 레제의 '결혼식'(1911~1912),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의 도시'(1910~1912) 등 큐비즘의 주요 흐름을 대표하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회화만이 아니라 '메르퀴르(Mercure) 발레 무대막'(1924) 같은 작업(피카소)을 비롯해 조각, 드로잉, 디자인, 아카이브 자료까지 포함해 큐비즘이 당대 시각 체계 전체를 재편한 운동임을 보여준다.

접근성과 의존성 사이

굳이 바다 건너 파리에 가지 않고도 퐁피두의 핵심 컬렉션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특별한 기회다. 특히 퐁피두 본관이 5년간의 대규모 보수로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순회 전시의 의미는 더 커졌다. 그럼에도 문화적 주도권이라는 맥락에서 질문이 남는다. "왜 독자적 컬렉션이 아니라 협업 중심 구조인가?"

이에 대한 한화문화재단의 답은 비교적 명확했다. 독자적 컬렉션을 토대로 하지 않기에 초기에는 자체 컬렉션을 구축하기보다 파트너십 기반으로 검증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자 컬렉션 구축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현재는 플랫폼의 기능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구조에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 브랜드 신뢰도의 즉각적 확보, 컬렉션 공백의 현실적 보완, 그리고 대중 접근성 확대다.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브랜드 의존 구조, 해석 권한의 외부화, 장기 자산 축적의 약화, 그리고 문화적 자율성에 대한 질문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수입형 구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화는 이를 '예술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거점'으로 규정하며, 일방향 수입이 아닌 교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설립 20주년을 앞둔 한화문화재단의 행보는 단순한 작가 지원을 넘어, 레지던시-전시-글로벌 협업으로 이어지는 문화 플랫폼 전략으로 확장돼왔다.

퐁피두 입장에서 보면, 해외 확장은 단순한 '진출이라기보다 현대미술관이 처한 조건 변화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술관은 점점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서로 다른 도시와 시간 속에서 재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전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작품은 더 이상 고정된 역사 속에 놓이지 않고, 각기 다른 장소와 조건에서 다시 읽히며 의미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상징'이었던 퐁피두는 또 다른 형태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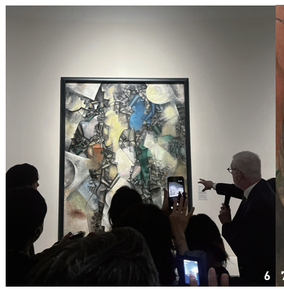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공간은 한국 미술 생태계를 키우는 장기 전략을 이끄는 문화 거점인가,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를 소비하는 중·단기 플랫폼에 가까운가. 답은 퐁피두센터 한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역학 구조에서 드러나겠지만, 관건은 그 이름이 한국 미술계에 어떤 흔적과 변화를 남길 수 있느냐다. 글 **고성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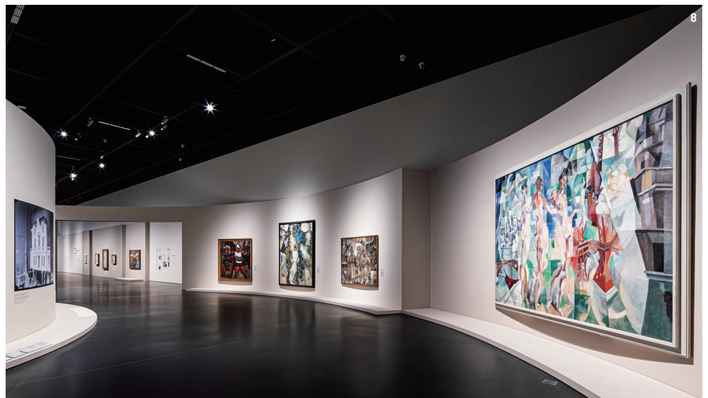
5



6



7



8



9

4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제2전시실 모습. 90점이 넘는 퐁피두 컬렉션의 큐비즘 작품을 선보인다. **5** 제2전시실 3층에서 선보이는 'KOREA FOCUS' 섹션. **6** 5월 19일 열린 미디어 프리뷰에서 전시 투어를 진행한 크리스티앙 브리앙 큐레이터. 배경의 유화 작품은 페르낭 레제의 '결혼식'(1911~1912). **7** 마리 로랑생,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두 번째 버전), 1909,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Dation, 1973.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Audrey Laurans/Dist. GrandPalaisRmn **8** 제1전시실 모습. 맨 오른쪽에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의 도시'(1910~1912)가 보인다. **9** 파블로 피카소, '기타 연주자', 1910, 카다케스, 캔버스에 유채, 100×73cm. Gift of Mr. and Mrs. André Lefèvre, 1952. Centre Pompidou, Paris © 2026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Korea)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 1, 2, 4, 5, 7~9 이미지 제공_퐁피두센터 한화



1

퐁피두센터 한화_'KOREA FOCUS'

다른 시공간 속 모더니즘

미술사에서 큐비즘은 늘 '혁명', '혁신'의 이름으로 설명된다.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며 원근법을 해체하고, '자연을 재현한다'는 예술의 정의를 뒤집은 사건. 그것을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라고 배워왔다.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을 둘러보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파리에서 현대미술의 문을 연 그 찬란한 순간, 과연 한국의 예술가들은 같은 근대를 살아가고 있었을까. 세계 미술계를 뒤흔든 모더니즘의 열풍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당도했을까. 파리와 경성, 두 도시의 시차는 제2전시실 'KOREA FOCUS' 섹션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더니즘 물결이 한국의 예술가들과 어떻게 조우했는지 살피는 이 공간이야말로, 이번 개관전의 의미를 더욱 또렷하게 해준다.



2



3

1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진행 중인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설치 모습. 제2전시실 3층에서 선보이는 'KOREA FOCUS' 섹션으로 김환기, 유영국, 박래현, 이수억, 함대정 등 한국 근현대 작가 11인의 작품 21점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4일까지. **2** 박래현, '노점', 1956, 종이에 먹, 색, 267×21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3** 이수억, '6.25 동란', 1954, 캔버스에 유채, 96×160cm, 가나문화재단 소장. **4** 함대정, '악사', 1950년대 후반, 캔버스에 유채, 81×65cm, 가나문화재단 소장 포스터. ※ 1~4 이미지 제공_ 퐁피두센터 한화



4

1900년대 초 '빛의 도시' 파리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만국박람회를 통해 파리는 프랑스의 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과시하며 많은 이들이 선망하고 모여드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 풍요와 역동의 한복판에서 예술가들은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담을 것인가 고민했고, 큐비즘은 바로 그 질문 한가운데서 태어났다. 반면, 같은 20세기 초 조선의 현실은 어땠을까. 대한제국의 몰락과 일제의 식민 지배, 그리고 훗날 닥쳐올 전쟁과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유럽 예술가들이 회화의 혁신을 논할 때, 한국 예술가들은 국가의 존립을 고민했다. 같은 시기였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한국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해방과 전쟁 중 재탄생한 한국의 큐비즘

1920~30년대 경성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파리는 거대한 이상향이었다. 그들은 회화, 문학, 무용, 건축을 넘나들며 파리를 동경하고 상상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 그들이 마주한 파리는 일본어로 번역된 정보와 흑백사진이 전부였다. 그래서인지 '큐비즘'이라는 동일한 주제 아래 전시된 당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피카소의 급진적 형태 해체와는 어쩐지 결이 달랐다. 1940년 작인 김환기의 '창'이나 유영국의 '10-7' 같은 작품을 보면 식민 지배라는 현실에서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이들의 큐비즘은 기하학적 추상에 가까워 보인다. 한국에서 큐비즘은 195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해방 이후 서구의 다양한 미술 사조가 밀려 들어왔지만, 작가들은 전쟁과 분단,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형태를 단순화해 재구성하는 큐비즘의 방식을 선택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큐비즘이 전통 회화를 해체하는 급진적 실험이었다면, 한국 작가들에게는 추상으로 향하는 통로였다. 더불어 그 안에 담긴 정서도 가족과 고향, 자연과 기억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었다. 큐비즘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있었지만 현실이 달랐고, 작품의 방향도 달랐다. 그래서 제2전시실에 놓인 작품들은 한국의 모더니즘이 일방적으로 전파된 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은 경성과 서울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다른 얼굴로 새롭게 태어났다. 수많은 번역과 변형을 거치고, 때로는 오해와 오역까지 창조의 일부가 되었던 셈이다. 1백 년이 흐른 지금, 서울 한복판에 파리의 퐁피두센터가 들어섰다. 한때는 잡지 속 흑백사진을 통해서만 파리를 상상해야 했던 서울이, 이제는 세계 미술사를 직접 불러들이고 우리만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내는 장소가 되었다. 서울은 더 이상 누군가의 '현대'를 뒤쫓는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제안한다. 퐁피두센터 한화의 이번 큐비즘 전시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파리의 모더니즘을 소개하는 전시인 동시에, 한국 근대미술이 어떻게 자신만의 모더니즘을 만들어냈는지 묻는 전시다. 이번 개관전은 1전시실과 2전시실을 함께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전시실에서는 한화문화재단의 자체 기획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개관식에서 밝힌 비전처럼, 퐁피두센터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미술을 새롭게 조명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술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거점'이라는 구호가 단순한 수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세계 미술사를 들여오는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만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내는 일일 것이다. 글 **김민서**



플로럴 프린트 스카프와 골드 버클을 조합한 가죽 벨트 1백5만원 **페라가모.**



캔 형태 실루엣에 모노그램 미루아 캔버스 소재로 완성한 더 잇 캔. 13×14.5×8.5cm, 3백58만원 **루이 비통.**



시트린과 스페사르타이트 가보, 다이아몬드로 레사반다를 정교하게 표현한 링 가격 미정 **부쉐론.**



오렌지 및 옐로 컬러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다채로운 플라워 모티브 패턴과 라펠 칼라가 어우러진 포플린 셔츠 드레스 2백30만원대 **에트로.**

for her Selection

아이코닉한 백과 플로럴 드레스, 선글라스와 부채까지.
도시와 휴양지를 오가는 시즌의 선키스트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가죽 핸들과 시그너처 로고 자수를 더한 토트백. 34×40×16cm, 2백65만원대 **미우미우.**

차보라이트와 루비, 애미시스트가 어우러져 산뜻한 컬러 포인트를 완성한 아이코니카 슬림 링 6백90만원대 **포멜라토.**



핑크 그러데이션 렌즈와 오버사이즈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by 케어링 아이웨어.**



또거운 햇빛을 가려줄 플로라 프린트 부채 75만원대 **구찌.**



부드러운 실크 트윌 소재의 인사이드 디올 애비뉴 90 스퀘어 스카프 가격 미정 **디올.**



다이아몬드, 핑크 사파이어, 자수정, 에메랄드가 조화를 이루는 울루울루 라지 이어링 가격 미정 **키린.**



조절 가능한 버클을 갖춘 앵클 스트랩이 달린 샌드 웨지 샌들 1백58만원 **끌로에.**



섬세한 골드 비즈로 장식한 18K 로즈 골드 빼를리 워치 23mm,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자작나무 소재에 시그너처 패들록 모티브를 더한 비치 라켓 세트 1백56만원 **로로피아나.**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구찌** 02-3452-1521 **그라프** 02-2256-6810 **끌로에** 02-545-7778 **로로피아나** 02-6200-7799 **루이 비통** 02-3432-1854 **부쉐론** 02-3467-8334 **키린** 02-2118-6228 **포멜라토** 02-3143-9486 **디올** 02-3480-0104 **미우미우** 02-569-3914 **에트로** 02-3446-1321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페라가모** 080-001-1927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레드 컬러 패턴 프린트로 화려함을 뽐기는 실크 셔츠 3백만원대 **돌체앤가바나.**



게자리를 상징하는 조디악 켄서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브라운 틴트 렌즈와 슬림한 메탈 프레임이 돋보이는 루네트 컬렉션 선글라스 가격 미정 **몽클레르.**



아리카 아쓰 인과 해방보 크로 캔버스로 제작한 스퀘어 포켓 백. 14×22.5×6cm, 1백10만원 **로에베.**

웨스턴 무드의 버클과 위빙 패턴을 더한 버케타 레더 벨트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for him Selection

스윔 쇼츠와 라피아 햇, 토트백부터 워치 & 주얼리 등
해변과 리조트, 그리고 도시의 여름을 위한 키 아이템.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라피아 소재에 비즈 장식 밴드를 더한 햇 4백94만원 **에르메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피넬을 세팅한 꼬메트(Comète) 스피넬 링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러버 솔과 버클 스트랩을 적용한 러버 피사벤 샌들 1백26만원 **크록스.**



티파니 블루® 오팔린 다이얼이 돋보이는 티파니 아틀라스 34mm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제이드를 세팅한 울루 뱀글 3천7백22만원 **키린.**



목과 손목, 백 등에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는 코튼 반다나 39만5천원 **셀린느.**



휴양지 풍경을 그래픽 프린트로 담아낸 저스트 인 케이스 토트백 29만원대 **투미.**



수영장부터 바다까지, 여름 휴양지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모노그램 이너 튜브. 120×120×40cm, 1백58만원 **루이 비통.**

아티스트 크리스타앙 베레르의 아트워크를 담은 디올리비에라 맨 스윔 쇼츠 1백40만원 **디올.**

에디터 **신영림**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디올 02-3480-0104 **로에베** 02-3479-1785 **루이 비통** 02-3432-1854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에르메스** 02-542-6622 **키린** 02-2118-6228 **투미** 02-539-8160 **티파니앤코** 02-6250-8620 **프라다** 02-3442-1831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몽클레르** 0030-8321-0794 **셀린느** 1577-8841

Deep Dive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
다이버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그대로 전하는 브랜드의 대표 컬렉션으로, 지름 42.3mm의 새틴 브러시드 23등급 티타늄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을 매치해 견고하고 절제된 미학을 드러낸다. 자동 칼리버 1315로 구동한다. 2천4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지름 42mm의 가독성 높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및 반사 방지 처리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야광 코팅 처리한 아플리케 장식의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 및 다이버 핸드 등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듬뿍 담았다. 터쿼이즈 컬러 포인트가 스포티한 매력을 자아내며, 셀프 와인딩 칼리버 4308로 구동한다. 4천9백4만원. 문의 02-543-2999
파네라이 섭머저블 콰란타쿼트로 카보테크™ 해양 탐험 DNA를 지닌 브랜드 감성을 담은 다이버 워치. 가볍지만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44mm 카보테크™ 케이스에 깊이감 있는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단방향 회전 베젤과 야광 인덱스로 완성했다. 300m 방수 성능과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P.900 오토매틱 칼리버를 장착해 실용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 2천7백27만원. 문의 02-2118-6256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 다이얼과 베젤의 블루 컬러부터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블랙 및 블루 컬러 세라믹 회전 베젤을 더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도 높은 블루 러버 스트랩으로 제공하며, 칼리버 TH31-03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백38만원. 문의 02-3479-6021 **튜더 펠라고스** 지름 42mm 티타늄 및 스틸 케이스에 500m 방수 성능, 헬륨 배출 밸브,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춰 극한의 수중 환경까지 고려한 프로페셔널 다이버 워치의 정수를 보여준다. 블루 다이얼과 베젤, 그리고 러버 스트랩까지, 한층 유연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전한다. 8백만원대. 문의 02-6956-1908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유서 깊은 해양 탐험의 역사를 계승하는 컬렉션의 워치로 지름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레이저로 물결 패턴을 새긴 블랙 알루미늄 다이얼을 매치했다. 로듐 도금 처리한 스켈레톤 핸즈와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인덱스로 완성했으며,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6으로 구동한다. 1천40만원. 문의 02-3467-8632 에디터 **성정민**


©Cartier ©Agnes Lloyd Platt
1


©Cartier ©Iris Velghe
2

Precious Harmony

까르띠에에게 젬스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모든 크리에이션의 시작이자 메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감의 원천 그 자체다. 올해 까르띠에는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Le Chœur des Pierres)'를 통해 또 한번 젬스톤에 대한 노하우와 탁월한 커팅 및 세팅 기술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스톤들은 메종의 손길 아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며, 까르띠에만의 하이 주얼리 세계를 완성한다.


3


©Cartier ©Annaick Lejart ©Cartier ©Agnes Lloyd Platt
4

매년 까르띠에가 빚어내는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션에는 스톤에 대한 메종의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다. 까르띠에 스톤은 소재의 순수함과 컷의 우아함, 비율의 정밀함이라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 이 스톤들은 메종의 디자이너와 스톤 전문가, 주얼러, 세공 장인, 젬세터, 폴리셔 등 장인들의 영감을 끌어내는 출발점이 되며, 까르띠에만의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또 하나의 하이 주얼리로 탄생한다. 특히 올해 까르띠에는 '젬스톤의 합창'이라는 뜻의 '르 쾨르 데 피에르(Le Chœur des Pierres)' 컬렉션으로 젬스톤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표현했다.

'르 쾨르 데 피에르'는 프랑스어를 활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다. 프랑스어에 'chœur' 발음이 촉발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chœur'는 목소리가 모인 '합창'을 뜻하며, 'h'를 생략한 'cœur'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다. 즉 여러 스톤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이자 까르띠에의 심장을 담은 컬렉션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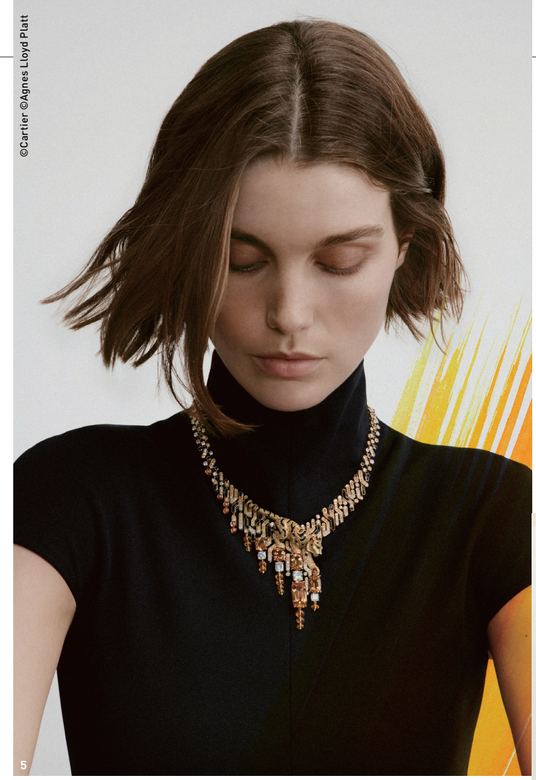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 디렉터 알렉사 아빗볼(Alexa Abitbol)은 이번 컬렉션에 대해 '젬스톤에 바치는 찬가'라고 설명한다. 각각의 젬스톤이 저마다 선율을 노래하는 눈부신 교향곡이라는 것. 이번 컬렉션은 까르띠에 장인들의 전문성이 깃든 약 1백30여 점의 유니크 피스로 구성되었으며, 8만5천 시간이 넘는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까르띠에는 각 스톤의 본질에서 영감을 끌어내 고유의 매혹적 개성을 드러내고 강렬한 컬러 구성으로 완성하는 등 까르띠에 스타일 자체를 상징하는 하이 주얼리로 탄생시켰다. 그중 대표 네크리스 6점과 이어링 1점, 링 8점을 소개한다.

네크리스, 빛과 구조의 완벽한 하모니

이번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에서 공개한 네크리스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한 구조와 찬란한 빛을 자랑한다. 먼저 40.67캐럿에 달하는 에메랄드 5개의 강렬한 컬러를 품은 네크리스 '오로라(Olorra)'는 20세기 초 까르띠에에서 처음 선보인 상징적인 그린-블루 컬러의 대비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했다. 커스텀 컷 터쿼이즈와 라피스 라줄리 스톤이 다이아몬드와 교차하며 기하학적인 펜던트를 이루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여기에 목을 따라 수없이 작은 요소와 모티브가 이어져 리듬감 넘치면서도 그래픽적인 젬스톤의 합창을 표현한다. 진정한 시각적 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에메랄드로 완성한 네크리스 '솔레나라(Solenara)'는 크기와 형태가 인상적인 에메랄드 2개에서 시작했다. 까르띠에는 메종이 추구해온 클래식한 디자인 감각과 간결함을 보여주기 위해 젬스톤 2개를 네크리스 끝에 세팅했으며, 한쪽에는 유기적인 원형 에메랄드를, 다른 한쪽에는 기하학적 구조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대비를 이루도록 해 지루함을 없앴다. 음악에서 부드럽게 이어 연주하는 것을 뜻하는 레가토(legato)처럼 유연함과 그래픽적인 명료함이라는 매력을 발산한다.

'텔루라(Tellura)'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피스다. 까르띠에 장인들은 다이아몬드 30개의 독특한 형태에 영감받아 이 독창적인 디자인의 네크리스를 완성했다. 디자이너와 장인은 머리를 맞대고 젬스톤이 매달려 찰랑이는 모티브를 생각해냈으며, 파베 스크롤과 오픈워크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볼륨의 상호작용이 네크리스가 계속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결과 이 매혹적인 스톤이 탄생하기 전 있었던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형적인 주얼리 피스가 완성되었다.


©Cartier ©Agnes Lloyd Platt
5


©Cartier ©Emmanuel Lafay
6


©Cartier ©Emmanuel Lafay
7


©Cartier ©Annaick Lejart
8

1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오닉스,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팬더 켄티아' 네크리스.
2 플래티넘 소재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비대칭으로 세팅해 완성한 '솔레나라' 네크리스.
3 플래티넘에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를 다채롭게 세팅해 독특한 뚜띠 프루티 감성을 완성한 '뚜띠 카나' 네크리스.
4 화이트 골드에 에메랄드, 터쿼이즈, 라피스 라줄리,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오로라'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매치한 모델.
5 옐로 골드에 토파즈, 가넛, 에메랄드, 오닉스, 옐로·오렌지·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하리마' 네크리스.
6 '하리마' 네크리스의 팬더 몰드와 스케치, 그리고 스톤.
7 '하리마' 네크리스에 사용할 스톤을 고르는 과정.
8 화이트 골드를 비선형적으로 제작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한 기하학적 무드를 자아내는 '텔루라' 네크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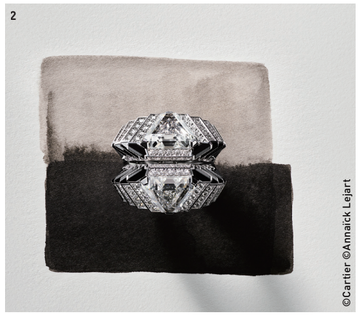
마치 거대한 자연의 합창과도 같은 이 크리에이션의 하이라이트는 인상적인 30.33캐럿 인 그레이빙 에메랄드로 완성한 '뚜띠 카냐(Tutti Kanya)' 네크리스다. 까르띠에는 이 에메랄드 주위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조각해 완성한 꽃과 잎, 베리를 화관의 꽃처럼 완성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메종의 레퍼토리로 이어져 온 뚜띠 프루티의 기본 컬러 팔레트를 충실하게 따라 레드, 그린, 블루로 완성했다. 또 볼륨과 스레딩(threading) 기법으로 완성한 루비 태슬 등 구조 전반에서 정밀함과 균형을 강조했다. 이 루비 태슬은 메인 모티브를 떼어 브로치로 착용 가능하다. 네크리스 아래에 숨은 프레셔스 메탈 소재의 나무는 궁극의 세련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다.

까르띠에에게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인 동물 세계를 반영한 네크리스도 빼놓을 수 없다. '하리마(Haryma)'는 팬더 못지않게 메종에게 중요한 호랑이를 총 28.04캐럿에 달하는 5개의 특별한 임페리얼 토파즈와 가넷, 화이트·옐로·오렌지 컬러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완성했다. 계단식으로 배열한 토파즈와 그 위를 고요히 움직이는 듯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묘사한 호랑이가 만나 역동적인 효과와 생동감을 부여한다. 맞춤 컷 오닉스 스톤은 호랑이의 털 패턴을 반영했으며, 호랑이의 해부학적 디테일을 정확하게 구현했다. 이 네크리스는 특히 완전히 관절화된 마디 구조로 목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14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까르띠에의 뮤즈로 자리해온 팬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팬더 켄티아(Panthère Kentia)'는 50.13캐럿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스톤으로 선택하고, 우아한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 기술을 결합해 완성했다. 카보숑의 유기적 형태와 네크리스의 기하학적 라인 사이에 이뤄진 대비를 활용했으며, 안쪽 가장자리에 식물 같은 디테일로 입체적인 모티브의 파동을 만들어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이 모티브들은 네크리스 가장자리로 확장되어 작은 카보숑 컷 사파이어로 마무리된다. 가운데 자리한 팬더의 존재감은 곡선과 그래픽한 라인 사이의 긴장감을 균형감 있게 조율한다. 팬더는 메종의 자연주의적 비전을 반영해 날카로운 에메랄드 눈과 맞춤 컷 오닉스 무늬를 갖춘 입체적 조각으로 표현했다. 또 완전히 마디 처리한 네크리스의 구조로 한층 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1 그레이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케오나' 링과 브라운-로즈 다이아몬드, 브라운 다이아몬드 컬러가 독특한 '앰버리스' 링.
2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계단식으로 세팅하고 오닉스를 더해 투아 에 무아(Toi & Moi) 감성을 전하는 '스페큘라' 링.
3 플래티넘에 핑크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아우랄리스' 링과 플래티넘에 그린-블루 다이아몬드와 그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킨코' 링.
4 플래티넘에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테트라야' 링과 사파이어의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스트라텔리아' 링.
5 플래티넘에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테셀리아' 링.
6 화이트 골드에 오렌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이라'. 이어링, 브로치, 헤어 주얼리로도 연출 가능하다.


©Cartier ©Agnes Lloyd Platt


©Cartier ©Annaïck Lejart


©Cartier ©Annaïck Lejart


©Cartier ©Annaïck Lejart


©Cartier ©Annaïck Lej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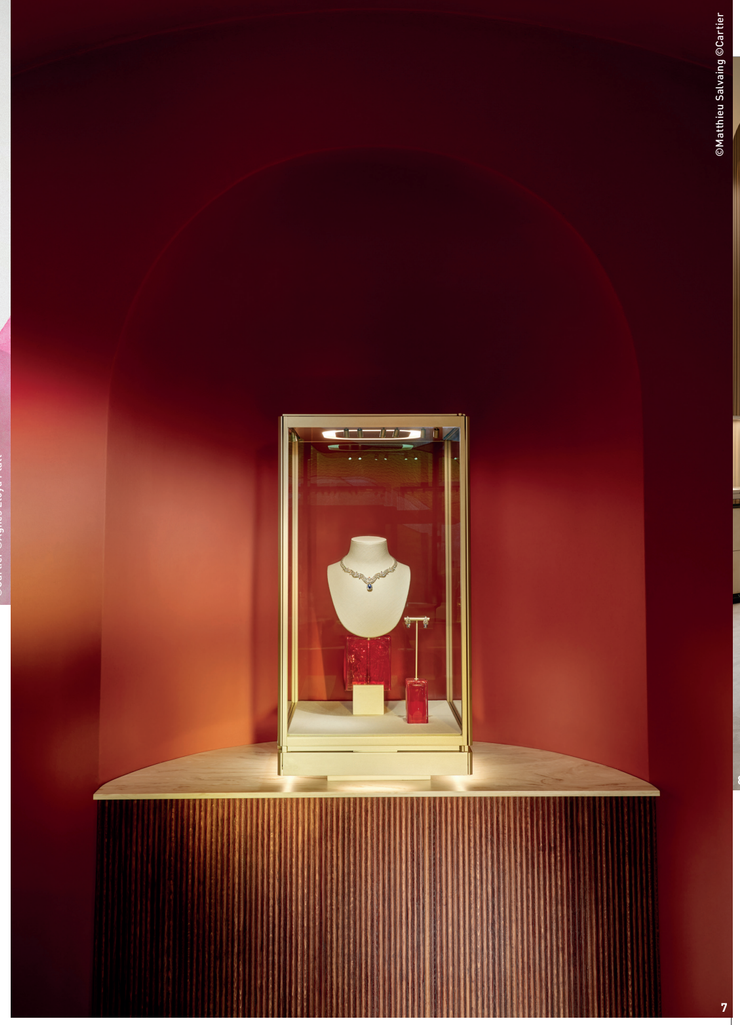

©Cartier

젬스톤이 빚어낸 예술의 순간

지난 5월 13일 까르띠에는 프랑스 생트로페에서 역사적인 론칭 이벤트를 개최했다. 바로 놀라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를 선보인 것. 신제품 1백30여 점은 17세기 후반에 지어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생트로페의 프로방스 저택에 전시되었다. 이번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쾨르 데 피에르는 다채롭고 황홀한 젬스톤의 향연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앞서 설명한 총 40캐럿에 달하는 5개의 에메랄드와 스톤의 기하학적 리듬감이 돋보이는 '오로라' 네크리스부터 계단식으로 배열된 임페리얼 토파즈 위에 고요히 움직이는 듯한 호랑이가 인상적인 '하리마' 네크리스, 1920년대부터 메종의 레퍼토리로 이어져온 뚜띠 프루티 스타일을 되살린 '뚜띠 카냐' 네크리스까지.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는 역사와 예술, 자연이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 생트로페의 경치와 고풍스러운 저택의 우아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지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번 행사의 테미를 장식한 갈라에는 메종의 프렌즈인 틸다 스윈턴과 서기뿐 아니라 다양한 셀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론칭 기념 칵테일 세션에는 뮤지션 존 레전드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Matthieu Salvaing ©Cartier


©Matthieu Salvaing ©Cartier

7 지난 5월 13일 프랑스 생트로페에서 선보인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전시 이벤트.
8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전시 이벤트를 진행한 생트로페 프로방스 저택 내부.
9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 네크리스를 착용하고 하이 주얼리 뷰잉 쇼를 선보이는 모델.
10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영감을 준 컬러 스톤.
11 이번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론칭 행사에 참석한 배우 서기.
12 르 쾨르 데 피에르 컬렉션의 '솔레나라' 네크리스를 착용한 배우 틸다 스윈턴.


©Cartier







1

The Show Must Go On

'처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 마티유 블라지의 첫 공방 컬렉션인 2026 공방 컬렉션 쇼가 서울에 처음 문을 여는 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뉴욕에서 선보인 쇼를 재현한 레플리카 쇼였지만, 새로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갤러리, 그리고 그 문을 처음 연 샤넬까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도 부족할 만큼 깊은 여운을 남긴 역사적인 순간으로의 초대.

역사적인 순간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티유 블라지의 첫 샤넬 공방 컬렉션 쇼가 개최되었다. 연말의 설렘으로 가득한 뉴욕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지하철역에서 선보인 쇼는 그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행보에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바로 그 쇼가 2026년 5월 26일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 서울의 지하철역 역시 매우 상징적 공간이기에 또 한번 서울 지하철에서 쇼를 선보이는 것은 아닐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디를 무대로 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장소는 개관을 앞둔 퐁피두센터 한화였다. 지하철과는 다른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공방 쇼에 대한 기대는 물론,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퐁피두센터 한화의 내부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 기대감과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파리 퐁피두센터와 한화문화재단의 파트너십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이다.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설계를 맡았으며, 6월 5일 공식 개관했다. 2023년 한화그룹에서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센터의 서울 지점의 유치권을 확정한 이후 퐁피두센터 서울의 개관 시기와 프로그램은 많은 예술 문화계 인사는 물론, 패션계와 대중문화계의 관심까지 모아왔다. 첫 체결식 당시 발표됐던 개관 일정에서 약 1년 연기되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미술관이 서울에 문을 열기 전,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샤넬의 공방 컬렉션 쇼가 그 공간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은 우연을 넘어선 필연으로 느껴진다. 더 넓게 보면 이는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인 동시에 패션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서울은 대중문화의 중심지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고, 그 위상은 퐁피두센터 서울과 샤넬 공방 컬렉션 쇼라는 상징적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처럼 다채로운 만남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마티유 블라지의 2026 공방 컬렉션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과 도시, 그리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따라간다.

마티유 블라지의 2026 공방 컬렉션

첫 공방 컬렉션 쇼를 선보인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티유 블라지. 그는 이번 공방 컬렉션이 가브리엘 샤넬에게서 영감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가브리엘 샤넬이 1931년 할리우드로 향하던 길과 돌아오는 길에 뉴욕에 머무른 경험에 영화적 상상을 더해 컬렉션으로 확장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뉴욕 다운타운에서 샤넬 스타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견했고,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심 어린 찬사라고 생각했다.



2



3

1 뉴욕 쇼에서 첫 번째 룩으로 선보인 편안한 저지와 청바지에 샤넬 백을 매치한 룩과 서울 쇼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모델 신현지의 레드 체크 셔츠와 데님 스커트 룩.
2 편안한 실루엣의 울 팬츠에 트렌치코트를 매치하고 달마시안 모양의 액세서리와 애니메이션 그래픽 감성을 담은 슈즈로 포인트를 준 룩.
3 뉴욕 지하철 쇼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부여했던, 퐁피두센터 한화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모델.
4 공방 컬렉션의 장인 정신이 담긴 디테일을 보여주는 자수 장식 크레이프-백 새틴 소재의 롱 드레스를 착용한 모델.

> *"뉴욕과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고 미술관도 많습니다. 또 두 도시 모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뉴욕 다음으로 서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 *- 브루노 파블로브스키 (Bruno Pavlovsky, 샤넬 패션 회장)*

마티유 블라지는 가브리엘 샤넬이 옷을 사랑했던 방식을 이번 공방 컬렉션에 담아냈다. 그는 사회적 시선이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여성을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가브리엘 샤넬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움직임과 역동성을 담은 룩을 선보였고, 그 무대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인 지하철역을 선택했다. 사교계 인사와 슈퍼히어로, 10대와 노인, 일하는 여성과 쇼걸, 점심시간을 즐기는 여성부터 바삐 오가는 엄마, 그리고 코코 샤넬까지 뉴욕 지하철역 쇼로 재해석한 것. 그리고 이번엔 그 풍경을 그대로 서울의 갤러리로 옮겨왔다. 언뜻 서로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지하철과 갤러리는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소다. 갤러리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각기 다른 생각과 해석이 공존하며, 수많은 움직임과 스타일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쇼는 지하철을 타고 갤러리로 향하는 여성을 그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즉 이번 공방 컬렉션은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국적과 인종을 넘어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옷이라는 가브리엘 샤넬의 근본적인 철학으로 돌아간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방 컬렉션은 친숙한 스타일에서 출발한다. 저지 셔츠에 데님을 매치한 룩이나 슬랙스에 코트를 툭 걸친 듯한,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의상이 대표적이



4





1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전인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전의 작품을 배경으로 워킹하는 모델들.
2 애니멀 모티브로 우아한 변주를 준 스커트를 착용하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
3 샤넬 쇼 참석과 동시에 쇼 직후 애프터 파티에서 멋진 공연까지 선보인 제니.
4 버건디 컬러의 샤넬 드레스를 멋지게 소화하고 쇼에 참석한 배우 김고은.
5 샤넬 쇼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배우 틸다 스윈턴.

다. 그러나 그 안에는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거친 일상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공존한다. 동시에 공방 컬렉션의 의미를 되새기듯 장인 정신을 곳곳에 녹여냈다. 정교한 자수와 결합한 '란제리 데님', 르마리에의 깃털 프린지 장식과 르사주의 자수 장식을 더한 아르데코풍 드레스, 화려한 울 부클레 트위드와 샤넬 체인 장식을 더한 남성 셔츠 모티브 룩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방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완성한 결과물이다. 그뿐 아니라 진주를 품은 굴 모티브, 에나멜 장식의 원숭이 모양 너트, 장난기 넘치는 사과 모티브 등 관광 기념품에서 볼 법한 오브제까지 장인 정신을 통해 고급스럽게 재해석했다. 구셴의 금세공 장인들이 제작한 아이스 큐브 글라스 카보숑과 아르데코풍 벌새 모티브 주얼리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이렇듯 이번 공방 컬렉션은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유쾌한 변주와 옷을 입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모두를 위한 컬렉션으로 완성됐다.

앞서 언급한 원숭이와 벌새 모티브처럼 마티유 블라지가 의도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도심 속 정글'이다. 패턴과 주얼리 장식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애니멀 모티브를 통해 일상적인 도시에 신비로움과 특별함을 부여한 것이다. 우아한 레오퍼드 트위드와 헤드피스, 황금빛 비늘이 인레이된 클래식 블랙 플랩 백, 핸드 페인팅한 레오퍼드 패턴의 튤립 스커트, 반짝이는 물고기 모티브를 겹겹이 배치한 아르데코풍 자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했다. 코코 샤넬이 직접 디자인한 전통적이고 섬세한 키드 스킨부터 현대적인 감각의 시어링 가죽과 애니멀 프린트까지 폭넓게 선보인 점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묘하게 서울 쇼와도 맞닿아 있다. 퐁피두센터 한화가 개관전으로 피카소를 필두로 한 큐비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독특한 애니멀 프린트와 장식은 큐비즘 작품과 한데 어우러지며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의도된 연출이었든, 지나치게 완벽한 우연이었든 상관없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황홀했다는 사실이다.

서울 그리고 샤넬을 기억하며

샤넬은 2015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크루즈 컬렉션 쇼를 시작으로 2019년 성수동 S팩토리에서 공방 컬렉션 쇼를 선보였으며, 서울에서 2026 공방 컬렉션을 선보였다. 샤넬 공방 컬렉션은 2002년부터 매년 하우스 창작의 근간을 이루는 뛰어난 장인 정신을 기려온 컬렉션으로, 오직 샤넬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쇼에 앞서 샤넬은 모델이자 샤넬 앰배서더인 바비타 만다바(Bhavitha Mandava)와 모델 신현지가 퐁피두센터 한화에 들어서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진 컬렉션의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바비타 만다바가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됐던 쇼의 오프닝을 떠올리게 했다. 또 퐁피두센터 한화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어지는 모델들의 동선은 뉴욕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연상시키며 컬렉션의 서사를 서울로 자연스럽게 확장했다. 모델들은 퐁피두센터 한화의 전시 공간을 지나면서 전시 작품 사이를 거니는 또 하나의 작품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한국 모델 신현지와 최소라가 각각 오프닝과 클로징을 장식하며 쇼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현장에는 수많은 국내외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샤넬 앰배서더인 지드래곤, 제니, 김고은, 고윤정, 박서준을 비롯해 김민하, 홍경, 카즈하, 코르티스 건호와 마틴, 이정재, 장윤주, 아이린, 윤여정, 이병헌, 김다미, 전여빈, 원희, 지창욱, 이수혁, 구교환, 원빈, 김나영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마리옹 코티아르, 계륜미, 틸다 스윈턴 등이 자리를 빛냈다. 쇼가 끝난 뒤에는 2015년 서울에서 첫 샤넬 공방 컬렉션 쇼가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애프터 파티가 이어졌다. 제니의 특별 공연과 페기 구의 DJ 공연은 서울의 밤을 더욱 뜨겁게 물들였다.

다음 날 2026 샤넬 공방 컬렉션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공개됐으며, 전 세계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서사로 완성된 '쇼'는 막을 내렸지만, 2026년 5월 26일의 서울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문의 080-805-9628







Interview with Bruno Pavlovsky

(브루노 파블로브스키, 샤넬 패션 회장)

"뉴욕과 서울의 쇼장은 다르지만 같은 컬렉션을 공유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컬렉션 그 자체입니다.
이번 컬렉션은 뉴욕과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가 시작되기 30분 전, 샤넬 패션과 SAS, Le19M 공방을 총괄하는 브루노 파블로브스키(Bruno Pavlovsky)를 만났다.
모두의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쇼를 대표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과 지금 이 순간의 감회에 대해 물었다.



Style Chosun(이하 SC) 작년 12월, 마티유 블라지의 첫 번째 공방 컬렉션은 뉴욕 지하철 플랫폼을 인상적인 런웨이 무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레플리카 쇼가 개최되는데, 서울의 관객들에게 뉴욕과는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경험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뉴욕과 서울의 쇼장은 다르지만 같은 컬렉션을 공유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컬렉션 그 자체입니다. 이번 컬렉션은 뉴욕과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다르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강렬하고 흥미롭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는 1천6백 명의 고객이 이번 쇼를 통해 샤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물론 지하철에서 본 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장소와 분위기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여성들이 입는 의상이 무엇인지 샤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SC 같은 컬렉션이며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뉴욕의 지하철은 매우 상징적이고 팝 컬처적인 공간이고, 서울의 갤러리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다른 에너지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연결하면 좋을까요? 둘 다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라는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뉴욕과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고 미술관도 많습니다. 또 두 도시 모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뉴욕 다음으로 서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닿았고 오랜 기다림 없이 마티유 블라지의 컬렉션을 바로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는 샤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샤넬에는 도시를 연결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다카르에서 도쿄로, 코모에서 싱가포르로, 뉴욕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쇼의 흐름처럼요. 전 세계 도시를 자유롭게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내죠. 이처럼 샤넬은 예상 밖의 것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쇼에서 뉴욕 지하철과 서울의 가장 멋진 미술관을 샤넬 컬렉션으로 연결한다는 대비도 매우 마음에 듭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샤넬이 모든 여성을 위한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들은 지하철도 타고 미술관에도 가죠.(웃음)

SC 이번 공방 컬렉션은 뉴욕 지하철에서 쇼가 진행되기도 했고, 보다 대중문화적인 코드와 샤넬의 아틀리에적 헤리티지가 공존하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럭셔리 하우스들 역시 다양한 문화와 연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샤넬은 어떻게 이러한 코드와 브랜드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나요? 샤넬에 있어 문화란 결국 장인 정신(craftmanship)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브랜드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샤넬의 방법은 특별합니다. 우선 메티에 다르(metiers d'art)와 수많은 공방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 장인의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죠. 이것이 샤넬 크리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샤넬은 미술과 미술관, 재단과 아티스트를 지원합니다. 이 또한 샤넬만의 방식이 있죠. 파리의 그랑 팔레(Le Grand Palais), 세계 최대 패션 아카이브인 팔레 갈리에라(Palais Galliera), 파리 오페라를 후원하고 있으며, 최근 퐁피두와의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죠. 우리는 단순히 '샤넬'로 보이기보다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매우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샤넬은 대중문화나 아르데코, 그 무엇이든 샤넬의 코드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브랜드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샤넬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덕분이라 여깁니다. 뉴욕에서는 마티유 블라지가 팝 컬처적인 접근법을 보여줬고, 몇 주 전에는 가브리엘 샤넬의 아르데코 시대를 주제로 한 쇼를 소개했습니다. 샤넬은 늘 매우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브랜드이기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SC 이러한 지속적인 네트워킹의 결과로 한국 최초로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쇼를 하게 되셨네요. 그 소감도 궁금합니다. 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팀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입니다. 샤넬 코리아와 파리 본사가 잘 협력해주었고, 샤넬 재단과 파리 퐁피두센터까지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마티유와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이 프로젝트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토록 많은 인원을 수용할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침 퐁피두센터 한화가 개관해 좋은 기회가 왔고, 그 때문에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훌륭하고 특별한 무대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와 대한민국 서울 사이의 강한 상징성까지 부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SC 오늘 쇼는 '공방 컬렉션'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나가는 샤넬 입장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샤넬은 늘 신기술과 함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AI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 행동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도 존재하죠. 하지만 AI는 절대로 유능한 재단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디자인, 정교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드레스, 세련미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샤넬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고려합니다.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샤넬은 여전히 존재하고 성장하며 최고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SC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샤넬이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비전이나 문화적 역할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아주 오래전인 3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최근 샤넬은 신세계 헤리티지나 샤넬 아틀리에 오픈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플래그십 스토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죠. 한국은 늘 샤넬에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샤넬 하면 '백'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샤넬은 결국 '패션'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패션'은 의류뿐 아니라 백, 액세서리, 슈즈까지 모두 연결되죠. 타 브랜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샤넬만이 지니고 있는 패션 에너지입니다. 이번 쇼와 그 에너지를 통해 샤넬의 패션 에너지가 한국에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SC 패션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패션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샤넬에서 느낄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바로 이러한 패션 에너지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에너지를 강하게 느낍니다. 패션에 대한 진심이요. 이번 쇼를 계기로 한국 여성들에게 샤넬이 백에서 패션으로 확장되고 전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SC 샤넬이 앞으로도 계속 동시대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 확신의 가장 큰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제 역할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넬이란 브랜드가 궁극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계속 앞서나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일단 이제 막 시작할 쇼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 직후의 상황이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또 얼마 전 샤넬에 합류한 마티유에 대한 확신 역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컬렉션 역시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미래는 앞으로 만들어나가야죠.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상황을 위한 최고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샤넬이 시작한 새로운 창조적 사이클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샤넬이 계속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브랜드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여성들이 샤넬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에디터 **성정민**



1



2

Heritage Reimagined

오랜 전통을 이어온 브랜드는 미학과 가치관, 장인 정신이 축적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다. 1백80여 년의 역사와 이를 지탱해온 공예적 유산을 품은 로에베 역시 그러하다. 로에베는 아카이브를 과거의 보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상징적인 디자인과 디테일을 동시대의 감각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진화해왔다. 아마조나 백은 이러한 연속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이코닉한 아이템이다. 빠르게 소비되고 잊히는 시대에도 로에베는 역사와 혁신, 희소성과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며 고유한 세계를 구축해왔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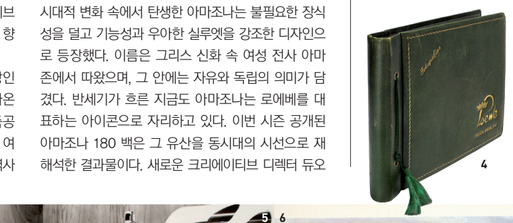


3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하우스의 가치는 단순히 오랜 시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축적하고 계승했으며, 또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다. 창립 180주년을 맞은 로에베는 아카이브를 통해 브랜드의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창작의 원천을 조명한다.

로에베에게 아카이브는 그저 보관소가 아니다. 장인 정신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수많은 오브제가 지나온 시간의 결을 담아낸 기록이다. 창립 초기부터 가죽공예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로에베는 지갑과 핸드백, 여행 가방 같은 오브제를 통해 사용자의 삶과 함께 역사를 쌓아왔다. 상당수의 소장품이 기증을 통해 수집된 만큼, 아카이브에 보존된 작품에는 사용 흔적과 마모, 소유자의 생활 방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 도면, 스케치, 완성품이 나란히 보존된 공간은 로에베 디자인의 진화를 보여주며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증명한다. 과거를 복기하는 장소라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창작의 근원에 가까우며, 로에베를 거쳐 간 크리에이터들이 아카이브를 가장 중요한 영감의 바탕으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철학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오브제가 바로 아마조나 백이다. 1975년에 출시된 아마조나는 스페인이 사회적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탄생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순간, 여성들은 점차 사회로 진출하며 보다 독립적인 삶을 꿈꾸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아마조나는 불필요한 장식성을 덜고 기능성과 우아한 실루엣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등장했다.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여성 전사 아마존에서 따왔으며, 그 안에는 자유와 독립의 의미가 담겼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아마조나는 로에베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시즌 공개된 아마조나 180 백은 그 유산을 동시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듀오 잭 맥콜로(Jack McCollough)와 라자로 에르난데스(Lazaro Hernandez)가 로에베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기존의 구조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루엣은 한층 유연해졌다. 싱글 토론 톱 핸들과 오픈형 구조, 숨겨진 수납공간은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실용성을 제공하며, 새롭게 선보인 더블 L 모노그램으로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로에베의 역사는 제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브랜드의 시각적 세계를 구축한 인물들 역시 중요한 유산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1945년부터 1978년까지 활동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호세 페레스 데 로사스(José Pérez de Rozas)다. 그는 로에베를 가죽 공방에서 국제적인 럭셔리 하우스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드리드 그란 비아와 바르셀로나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의 플래그십 스토어의 규모를 확장하며 유럽 전역에서 브랜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윈도 디스플레이와 스토어 디자인을 무대처럼 연출하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열대 풍경과 서커스, 동물, 이국 문화에서 영감받은 그의 디스플레이는 해외 문화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당시 스페인 사회에 신선한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로에베 스토어는 판매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통로가 되었고, 그의 예술적 비전은 지금까지도 브랜드의 DNA에 남아 있다. 이렇게 축적된 유산은 마드리드 인근 헤타페 공방으로 이어진다. 수백 명의 장인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죽 제품을 제작하며 오랜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51년간 로에베와 함께해온 장인 파코 구즈만(Paco Guzmán)은 그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제작과 개발, 품질 관리 등 공방의 거의 모든 과정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로에베 가죽공예 학교에서 다음 세대 장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은 기술뿐 아니라 로에베가 지켜온 기준과 철학을 함께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신입 장인들은 별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작 현장에 투입된다. 그는 장인의 역할을 '해결사'라고 설명한다.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장인은 그것을 실제 오브제로 구현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반복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으로 완성될 수 없다. 예술성과 기능성, 창의성과 실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그것이 로에베 공예의 본질이다. 로에베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응축된 자산이다. 창립 180주년과 아마조나 백 탄생 50주년이라는 역사는 그 유산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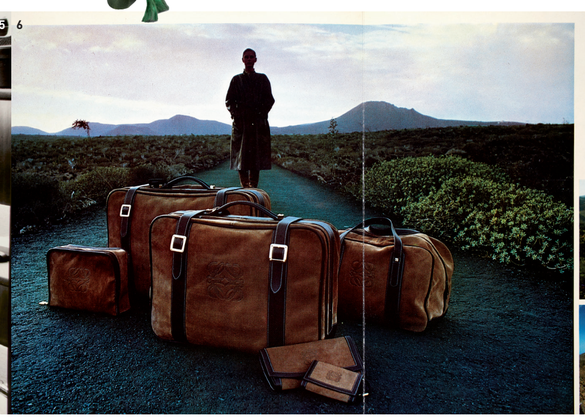


4

1 1939년 마드리드 그란 비아에 오픈한 로에베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습. 2 1975년에 출시된 안테 오로(Ante Oro) 컬렉션의 오리지널 아마조나 백. 3 1920년에 선보인 마우스 모티브 장식의 주얼리 박스. 4 1947년 당시 직원들이 로에베 가문에 선물한 사진 앨범. 5 1960년 건축가 하비에르 카르바할이 디자인한 마드리드 세라노 거리의 로에베 매장은 핸드백과 지갑, 파우치, 벨트, 장갑 등 가죽공예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6 사진가 미셸 말카가 촬영한 1979 F/W 로에베 카탈로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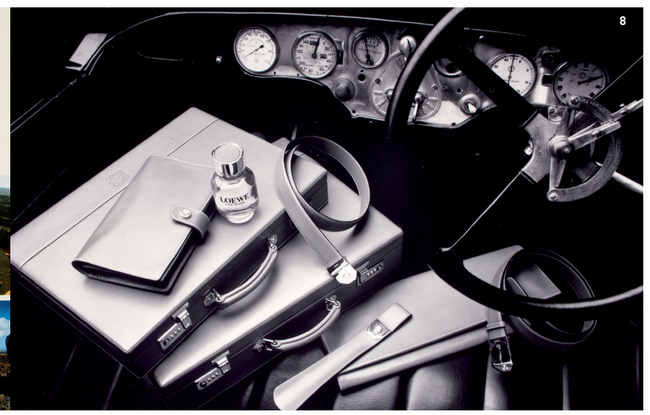


6



7

7 브랜드 창립 180주년을 기념해 배우 줄리아 가너가 참여한 로에베 캠페인. 8 1980년대에 제작된 로에베 프레스 키트. 9 로에베의 유산을 재해석한 캡슐 컬렉션에서는 사자 모티브 디테일을 더한 플라멩코 클러치, 퍼즐 백, 아마조나 180 백을 만나볼 수 있다. 10 캡슐 컬렉션의 해먹 백을 들고 있는 캠페인 속 에스파 지젤의 모습. 11, 12 이번 캡슐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조나 180 백에 다채롭게 더한 사자 모티브로, 제품마다 다른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위부터) 비즈 장식의 미디움 아마조나 180 백. 인타르시아 카프 스킨 소재의 라지 아마조나 180 백.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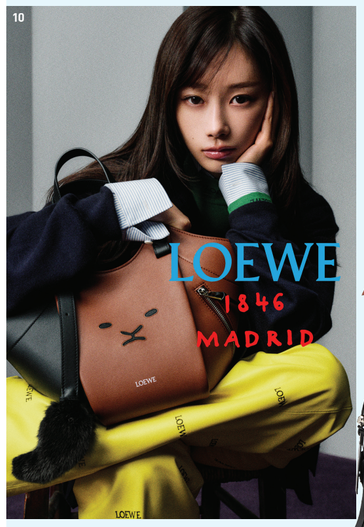
Ways of Honoring

1846년 마드리드의 가죽 장인이 모여 탄생시킨 로에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패션 하우스다. 자갈길 위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여정은 수공예를 정체성의 중심에 둔 독창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이어져왔다. 가죽공예를 핵심 가치로 삼는 로에베는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하우스만의 유산을 이어왔고, 특유의 유쾌한 감각을 더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 올해 공개한 180주년 기념 캠페인은 이러한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작가 탈리아 체트릿(Talia Chetrit)이 포착한 캠페인에는 글로벌 앰배서더 줄리아 가너를 비롯해 에스파의 지젤, 아티스트 카라 워커 등이 등장하며, 이들은 브랜드의 대표 백인 플라멩코 클러치와 퍼즐 백, 새롭게 출시한 아마조나 180 백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며 하우스가 지나온 시간을 하나의 장면처럼 완성했다.

캠페인과 함께 공개된 캡슐 컬렉션은 가죽 소품과 의류를 통해 구조와 소재를 다루는 브랜드의 미학을 드러냈다. 특히 비즈 자수와 가죽 참, 백 내부 등 곳곳에 적용된 사자 모티브는 '로에베(Loewe)'가 독일어로 '사자'를 의미하는 데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컬렉션 전반을 관통하는 상징으로 활용됐다. 더불어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내레이션으로 완성한 애니메이션은 로에베의 역사 속 주요 장면을 따라가며 하우스가 걸어온 시간을 되짚었고, 간행물 〈1백80년 공예의 역사(180 Years of Craft)〉는 아카이브 속 대표 작품과 마드리드 공방의 내부, 그리고 1970년대 스페인의 사회·정치적 배경 속에서 아마조나 백이 지녔던 의미를 한데 엮어내며 로에베의 세계를 보다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과거의 유산을 색다른 시선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로에베 창립 180주년을 기리는 것은 단순히 회고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시도에 가깝다. 과거는 보존되고 형태는 변화하며, 그 안의 의미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재로 이어진다. 그 시간의 층위는 오늘날 로에베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으로 남아 있다.

문의 02-3479-1785 에디터 **김하얀**



10



11



12

Get The List

내리쬐는 햇빛 아래 초록은 짙고 푸른 하늘은 더없이 투명하다.
여름의 문턱에서 펼쳐진 찬란한 서머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DAMIANI
올해 새로 선보인 마르게리타 컬렉션.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해 브랜드의 상징인
마르게리타 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링과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문의 02-515-1924



OMEGA
전설적인 1957년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받았다.
지름 40.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더하고
로듐 도금 아워 마커와 브로드
애로 핸즈를 적용했다. 6시
방향에는 날짜창,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 등이
자리한다. 수동 와인딩 방식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9906으로
구동하는 스피드마스터 '57
1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43-2999



QEELIN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루비, 제이드 등을 더해
중국 전통 사자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파인 주얼리로
구현했다. 탈착 가능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씨씨 팬던트 네크리스
4천2백68만원 **키린.**
문의 02-310-5189



RALPH LAUREN COLLECTION
부드러운 램 스킨을 정성스럽게
엮어 완성한 입체적인 디테일이
특징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아델라 뮬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TAG HEUER
5등급 티타늄과 로즈 골드 소재를
조합한 39mm 케이스가 브랜드의
혁신과 우아한 품격을 동시에
표현한다. 블랙 오팔린 다이얼 위
실버 서브 다이얼, 로즈 골드 도금
인덱스와 핸즈가 선명한 입체감을
완성한다.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TH20-11을 장착해
약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1천8백44만원
태그호이어. 문의 02-3479-6021



HUBLOT
지름 42mm의 민트 그린 세라믹
케이스와 베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스켈레톤 다이얼과 아라비아숫자
인덱스가 어우러져 아이코닉한
존재감을 완성하는 빅뱅 유니코
민트 그린 세라믹 3천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CELINE
트리옹프 슬라이딩 메탈릭
볼을 활용해 가방의 크기와
실루엣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옐로·레드·그린·
화이트 컬러 라인 등으로
산뜻한 포인트를 준 카프
스킨 소재 라지 드롭 버킷 백.
57×45×20cm, 5백6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어시스턴트 **김지원**



CHANEL FINE JEWELRY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꽃, 까멜리아를 형상화했으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절제된 여성성과
우아함, 자유로움을 모두 담았다.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까멜리아 꽃을 표현한 링과 이어링
모두 까멜리아 컬렉션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김하얀**


1


2

Journey to Mediterranean

여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투미는 지난 5월 29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는 특별한 팝업을 진행했다. "지중해 해안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영감받은 '메디터레니언 이스케이프(Mediterranean Escape)' 컬렉션은 투미의 아이코닉한 제품에 타임, 워시드 옐로 등 생동감 있는 컬러를 입혀 자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팝업 공간 역시 컬렉션의 무드를 반영해 이국적인 분위기로 연출했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며 쉬어 갈 수 있는 작은 휴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내한한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총괄 대표 아리스 마룰리스(Aris Maroulis)는 새로운 컬렉션과 팝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이어 여성 고객층 확대를 위한 브랜드 전략과 한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3

interview with
Aris Maroulis
아리스 마룰리스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총괄 대표)

New Version of Iconic

지중해의 여유로운 정취를 담은 메디터레니언 이스케이프 팝업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 스테이지에 마련됐다. 방문객들이 컬렉션의 무드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은 지중해 빌라를 콘셉트로 꾸몄다. 컬렉션의 그래픽 프린트에서 영감받은 풀 덱과 파라솔, 플랜트 디스플레이, 타일 패턴 등 섬세한 연출 요소가 어우러져 햇살이 쏟아지는 해안 도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중앙에 자리한 액티베이션 바에서는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간 곳곳에 오브제처럼 배치된 이번 시즌 주요 제품. 투미의 시그너처 라인인 19 디그리(19 Degree)를 비롯해 보야져(Voyageur), 올라스(Olas)에 타임 그린(Thyme Green), 클레이 핑크(Clay Pink), 워시드 옐로(Washed Yellow) 등 지중해의 자연에서 영감받은 컬러를 적용해 기존 투미에서 보기 어려웠던 한층 경쾌하고 자유로운 무드를 완성했다. 이날 현장에는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와 함께 아이브 리즈와 프로미스나인 이채영이 참석해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 스테이지에 마련된 투미 팝업은 지중해 해안의 따스한 정취를 담아낸 몰입형 공간이었다. **2** 액티베이션 바 옆, 풀 덱 존에 시원한 물장과 프라이빗 빌라를 연상시키는 타일과 오브제를 배치해 휴양지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고객 참여 이벤트의 일환으로 투미 카키오톡 채널을 추가한 모든 고객에게 부채를 증정했다. **4** 이번 팝업을 위해 내한한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총괄 대표 아리스 마룰리스.

혁신, 디자인, 고객 서비스 등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한국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서 시작된 트렌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단순히 중요한 시장을 넘어 앞으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인 시장입니다.

SC 한국 시장을 이끌면서 가장 도전적인 순간이나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이번 팝업이 가장 큰 도전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팀과 비즈니스 모두 여러 도전 과제를 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팝업을 통해 투미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으니 말이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선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충분히 축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SC 개인적으로 여행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평균적으로 매주 출장을 다닐 만큼 이동이 많은 편이라 여행 가방의 기능성과 짐의 안정성, 그리고 정리 정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짐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필요한 물건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선호합니다. 스타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어떤 가방과 캐리어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렌지 컬러를 좋아해 오렌지 포인트가 들어간 투미 맥라렌 컬렉션을 즐겨 사용합니다. 업무용은 물론 개인 여행에도 활용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SC 투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한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웃음) 반세기가 넘는 히스토리를 지닌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집중', '목적성', '진취성'입니다. 투미는 단순히 유행을 좇는 브랜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진화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한 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헤리티지는 과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한 가이드이자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심하고 움직이며,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죠. 문의 02-539-8160

에디터 **김하얀**


4

Oriental Grace

동양의 미를 표방하며 자연의 숭고함을 주얼리로 풀어온 키린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 베이징 자운헌에서 프라이빗 전시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을 선보였다. 중국 구이저우의 자연과 전통문화에서 영감받은 이번 파인 주얼리 전시는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이 맞닿은 찰나를 시적 공간 연출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키린이 품은 동양적 미학과 서사, 그리고 파인 주얼리가 지닌 조형적 예술성이 한층 선연하게 드러났다.


1

A Garden of Jewelry

동양의 자연이 지닌 숭고한 생명력을 귀중한 원석과 독창적 디자인, 그리고 정교한 장인 정신으로 표현해 온 키린은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중국의 길상 문화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성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 전시는 브랜드의 본질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다. 올해는 베이징에서 공개됐으며, 중국 구이저우의 자연과 전통문화에서 영감받아 구성됐다.

짙은 녹음이 내려앉은 공간에 들어서면 기와지붕 위를 스치는 흰 비둘기와 공작의 형상,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된 울루(Wulu) 구조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롱박에서 유래한 울루는 행운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공간 전반에 배치되어, 전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상징적 연결성을 더한다. 여기에 산을 닮은 조형물과 바위, 식물 디테일이 어우러져 마치 자연 한가운데서 주얼리를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연못 위로 드리운 울루 실루엣과 은은한 조명은 공간을 한층 몽환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에 기반을 둔 동족(Dong ethnic group)의 전통문화와 장인 정신이 자리한다. 공동체적 삶과 신앙,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된 동족 문화는 동시대적 감각과 결합하며 컬렉션 전반에 새로운 서사를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보인 파인 주얼리 컬렉션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울루 링크(Wulu Link)' 컬렉션을 포함해 동족의 전통 직조 기법을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표현한 '스파이더 플라워(Spider Flower)', 신비로운 블루 톤이 돋보이는 '퀸(Queen)', 우주의 흐름을 형상화한 '동치(Dong Chi)', 움직임에 따라 다이아몬드 장식이 섬세하게 흔들리는 '링동(Ling Dong)'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글로벌 앰배서더인 중국 배우 류시시(Liu Shishi)를 비롯해 탁구 선수 왕추친(Wang Chuqin), 배우 장백지(Cecilia Cheung)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키린은 〈미라클 가든〉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과 현대 디자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하며 동양 고유의 가치와 기품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Masterpieces Unveiled

키린의 2026 파인 주얼리 컬렉션은 중국과 소수민족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전통 마을의 목조 구조물인 드럼 타워의 실루엣, 하늘을 가르는 봉황의 유려한 비상, 신성한 황금 거미의 상징적 이미지 등을 정교한 주얼리로 승화하며 동양의 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하늘과 땅의 리듬, 산과 강의 순환을 담은 동치 컬렉션은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라인은 숫자 8의 상징성과 울루 실루엣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로즈 골드에 오벌 컷 루벨라이트가 우아하게 흐른다. 또 다른 라인은 물과 뱀, 태양에서 영감받은 나선형 모티브를 중심으로 루비와 아파타이트를 장식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구현했다. 퀸 컬렉션은 봉황의 우아한 움직임을 통해 변화와 재탄생의 의미를 담았으며, 전통 인디고 염색 문화에서 착안한 색채, 블루 사파이어와 아쿠아마린을 더해 신비롭고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번 시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울루 링크 컬렉션은 천상의 기운과 전통 타이다이 염색의 짙은 인디고 컬러를 모티브로 전개된다. 조롱박 형태의 울루 위에 희귀한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조화롭게 배치해 물줄기가 바위를 휘감아 흐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 네크리스의 진주와 투르말린 버전은 최근 배우 임윤아가 칸 레드 카펫에서 착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나선형 울루 디자인에 핑크 사파이어, 자수정, 에메랄드 등을 조합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울루울루, 거미와 모란꽃을 결합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스파이더 플라워, 보호와 조화, 균형의 염원을 담은 '인피니트 치(Infinite Chi)' 등을 함께 공개했다. 각 작품은 예상치 못한 스톤과 컬러의 조합, 섬세한 세공 기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키린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파인 주얼리의 예술적 세계관을 한층 깊고 풍부하게 그려냈다. 문의 02-3479-1962

에디터 **김하얀**


2


3


4


5


6 7

1 핑크 사파이어와 자수정, 에메랄드를 조합해 곡선미를 화려하게 담은 '울루울루' 네크리스. **2** 동양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라클 가든〉 전시장 내부. **3** '퀸' 네크리스는 마퀴즈 컷 사파이어와 페어 컷 아쿠아마린으로 신성한 봉황의 모습을 담았다. **4** 총 14.08캐럿의 오벌 컷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빛이 부드럽게 번져가는 순간을 형상화한 '울루 링크' 네크리스. **5**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화이트 골드 울루 실루엣 위에 마퀴즈 컷 다이아몬드 하나를 공중에 부유하듯 세팅한 '울루 트레저' 이어링. **6** '울루 링크' 링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사이에 큼직한 오벌 컷 투르말린을 포인트로 세팅했다. **7**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통해 고요하게 흐르는 물결을 표현한 '울루 트레저' 네크리스.

So FABULOUS!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한여름밤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드레스 코드.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에어퍼즐 버블 맥시 드레스,
페더 러플 맥시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수잔 팡 by 10 꼬르소 꼬모 서울.
멀티컬러 드래곤플라이 모티브
네크리스 73만원 **스와로브스키.**

램 스킨 재킷과 팬츠, 레드 컬러 램 시어링 볼레로, 메탈 & 레진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홀터넥 드레스 가격 미정 **오우드 왜그**. 퍼 스트랩 힐 2백58만원 **지안비토 로시**. 체인 디테일 링 가격 미정 **한나신**.

스카이 블루 컬러의 비대칭 드레이핑 미디 드레스 가격 미정 **다올**. 실버 스팽글 장식의 뮬 4백71만원 **지안비토 로시**. 밀레니아 레이어드 네크리스 2백40만원 **스와로브스키**.

비대칭 스타일의 포플린
로브 코트 4백만원대, 포인티드
새틴 스커트 3백만원대,
페이턴트 카프 스킨 콘 샌들 1백만원대,
프린지 하이 삭스 3백만원대
모두 **알라이아.** 타이넥 이브닝드레스
가격 미정 **오우드 왜그.**

미러 장식의 골드 뷔스티에와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한나신.** 파슈 이어링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플라워 패턴의 스팽글 재킷 가격 미정 **발렌티노.** 리본 디테일의 펄 네크리스, 쿠에르 로얄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블랙 러플 스커트 가격 미정 **잉크.**

비대칭 구조의 슬릭 드레스,
스킨 컬러의 시스루 튬, 레더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블랙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한나신.**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박희정**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알라이아 02-6905-3413
오우드 왜그 oude-waag.com
수잔팡 by 10 꼬르소 꼬모 서울 1599-0007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4-4655
잉크 02-512-9711
릭 오웬스 02-6905-3578
한나신 010-2083-0760
샤넬 080-805-9628
디올 02-3280-0104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1



2



3



4



5



6

1 샤넬 패션 2026 공방 컬렉션
샤넬이 지난해 12월 뉴욕 지하철에서 공개한 마티유 블라지의 첫 공방 컬렉션 쇼를 지난 5월 26일 서울 풍피두센터 한화에서 다시 개최했다.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쇼는 도심 속 정글에서 영감받아 다양한 애니멀 모티브를 적용한 의상과 액세서리, 슈즈를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의 080-805-9628

2 반클리프 아펠 매혹적인 이집트
반클리프 아펠이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매혹적인 이집트'를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영감받았으며, 10.02캐럿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와 신화적 인물을 형상화한 클립, 프레스코화를 연상시키는 브레이슬릿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1877-4128

3 쇼메 에피 드 블레 드 쇼메
쇼메가 새로운 '에피 드 블레 드 쇼메' 컬렉션을 통해 메종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이어간다. 풍요와 번영, 결실을 상징하는 밀 이삭 모티브를 구현했으며, 옐로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더했다. 문의 02-1670-1180

4 발리 리프트 니트 스니커즈
발리의 2026 S/S 시즌 리프트 니트 스니커즈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니트 구조로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하며, 발등과 힐 부분에 소가죽을 배치해 내구성을 높였다. 깔끔한 실루엣의 데일리 슈즈로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다. 문의 02-2163-1122

5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크로노그래프 007 퍼스트 라이트
오메가가 액션 어드벤처 게임 '007 First Light'와 협업해 새로운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크로노그래프 007 퍼스트 라이트를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제임스 본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라인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4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화이트 에나멜 다이빙 스케일을 적용한 폴리시드 블랙 세라믹 베젤 링으로 완성했다.
문의 02-3467-8632



7

8

6 주한 이탈리아 무역공사 & 이탈리아 패션협회(EMI) 이탈리안 패션데이즈 인 코리아
주한 이탈리아 무역공사와 이탈리아 패션협회(EMI)가 패션 트레이드 쇼 '이탈리안 패션데이즈 인 코리아(2027 S/S Collection)'를 7월 1~3일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탈리아 컨템퍼러리, 럭셔리, 캐주얼 등 패션 브랜드 50여 개가 참가하며, 바잉, OEM, ODM, 독점 전개권,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02-6941-0370

7 샤넬 파인 주얼리 N°5 주얼리 컬렉션
샤넬 파인 주얼리가 N°5 향수에서 영감받은 'N°5 주얼리 컬렉션'의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 메종의 상징적인 숫자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 네크리스와 이어링은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파베 세팅한 후프 이어링은 베이지 골드와 화이트 골드, 2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805-9628

8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츄얼 요트-마스터 II
롤렉스가 차세대 오이스터 퍼페츄얼 요트-마스터 II를 출시했다. 케이스는 스틸과 18K 골드 버전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사를 줄인 화이트 매트 래커 다이얼을 적용했다. 양방향 회전 베젤은 브랜드가 개발한 첨단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했으며, 무브먼트는 새로운 자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4162를 탑재했다. 문의 02-6370-4298

9 투미 메디터레니언 이스케이프 컬렉션
투미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지중해의 여유로운 감성을 담은 '메디터레니언 이스케이프 컬렉션'을 선보인다. 청량한 블루부터 테라코타, 뉴트럴 톤까지 다채로운 컬러 조합이 돋보이며, 캐리어와 백팩, 토트백, 크로스 백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감각적인 여행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539-8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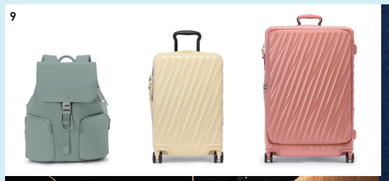
10 키린 미라클 가든 파인 주얼리 프라이빗 전시
키린이 베이징 자운헌에서 브랜드의 동양적 미학과 문화적 서사를 담은 〈미라클 가든〉 파인 주얼리 프라이빗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중국 구이저우의 자연과 전통문화에서 영감받아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공간 연출로 선보였다.
문의 02-6905-3453

11 피아제 아트 오브 컬러 팝업 오픈
피아제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아트 오브 컬러(Art of Colour)' 팝업을 진행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러 미학과 메종의 아이콘 컬렉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팝업과 SSG 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식스티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1877-4275

12 로에베 스몰 라이언 인타르시오 아마조나 180 백
로에베가 브랜드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특별한정 컬렉션의 아마조나 180 백. 브랜드명 'LOEWE'의 어원인 독일어 'Löwe(사자)'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장난기 넘치는 사자 캐릭터가 얼굴을 내민 듯한 디테일로 위트 있는 매력을 선사한다. 문의 02-518-6416

13 포멜라토 이코니카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파인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토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조화롭게 세팅한 새로운 이코니카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브랜드 특유의 볼드한 골드 디자인에 원, 삼각형, 사각형, 별 등 기하학적 모티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030-8321-0441

14 셀린느 오떤 2026 캠페인
셀린느가 가을 무드를 담은 '오떤 2026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선명한 패턴의 스카프와 백을 비롯해 브랜드의 상징적인 로고 디테일을 활용한 액세서리,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의류 라인업을 선보였다. 문의 1577-8841



9



10



11



12

13



14

Special

Re-mapping

세계를 읽는 좌표가 달라지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때는 중심과 주변, 원본과 번역, 전통과 혁신 같은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 기술과 감각,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미술사 내부에서도 '무엇이 중심으로 호명되고 무엇이 주변화되어왔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위대한 예술가'라는 개념 또한 역사적, 제도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어왔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 중심인가를 가려내는 일이 아니라,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좌표를 어떻게 다시 배치하고 유연하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여름 스페셜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술을 둘러싼 여러 층위를 동시에 다룹니다. 먼저 전후 한국 미술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경로를 개척해온 여성 작가 6인–정강자, 김순기, 김윤신, 정은모, 홍승혜, 이수경–을 다루는 '확장된 지도: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과 도약'. 아방가르드·추상·실험·미디어 아트 등의 영역에서 선구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온 이들을 조명하는 이 지면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새로운 시선으로 읽어내는 또 하나의 좌표를 제안합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하나의 완결된 중심 서사가 아니라, 여러 좌표가 공존하는 지도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도입니다.

문화 산업과 제도, 개인의 실천과 글로벌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예술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재배치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서울에 들어선 퐁피두센터 한화는 단순한 전시 공간의 추가라기보다, 글로벌 미술관이 도시와 결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개관전의 'KOREA FOCUS' 섹션은 큐비즘이라는 모더니즘의 언어가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지연되고 번역되었던 한국 근대미술의 풍경을 살펴보며, 하나의 중심 서사 밖에서 형성된 또 다른 동시대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좌표들 사이에서, 우리가 세계와 예술을 읽어내는 방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품은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art + Culture

확장된 지도

: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과 도약

·　　지도를 펼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온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 위에 그려진 선들은 변하지 않는 경계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시선이 머물다 간 흔적이다. 미술사의 지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완결된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여러 시대의 조건과 제도, 기억과 해석이 겹친 잠정적 배열에 가깝다.

··　　이 전시는 미술사의 빈칸을 채우거나 완성된 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지도가 투영 방식에 따라 대륙의 크기까지 다르게 보여주듯, 지도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 불완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신체와 전위적 실험, 자연과 비물질적 사유, 물성과 생명의 조각 언어, 추상 회화와 공간 구성, 디지털 이미지와 새로운 조형 체계, 파편과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전후 한국 현대미술의 변화와 확장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의 경계를 넓혀온 여성 작가 6인의 궤적을 따라간다.

···　　이들의 작업은 하나의 양식이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장소와 경험, 매체와 재료를 바탕으로 전개된 여섯 작가의 실천은 한국 현대미술 안에 또 다른 경로와 좌표를 만들어왔다. 정강자는 신체와 환경을 매체로 삼아 기존 예술의 경계를 확장했고, 김순기는 자연과 우연, 기록의 행위를 통해 자아를 비우고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윤신은 나무라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순환과 합(合)과 분(分)의 세계를 조형화했으며, 정은모는 기하학적 질서를 빛과 색채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홍승혜는 픽셀이라는 디지털 최소 단위를 통해 이미지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구조를 탐색했고, 이수경은 깨진 도자 파편과 금빛 접합을 통해 불완전함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재구성했다.

····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여섯 작가의 작업에는 공통된 태도가 존재한다. 각자의 조건 속에서 형성된 시간은 몸, 자연, 물질, 공간, 이미지, 파편이라는 여러 층위를 거치며 저마다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자의 작업은 서로 다른 좌표에 놓여 있지만, 그 사이에는 고정된 형태보다 변화하는 과정, 완성된 결과보다 생성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자리한다. 여섯 개의 이름은 느슨한 세대를 이루면서도 각기 다른 세계를 품고 있다. 그 세계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중심 서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 현대미술의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글 **고성연**

Curatorial Concept_고성연

JUNG Kangja

정 강 자

무체(無体)를 향한 몸, 그 해방으로의 여정

검은 장막으로 둘러싸인 실내. 바닥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수색 조명은 폐쇄된 공간의 곳곳을 더듬어가며 비춘다. 곧이어 공습경보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가로질러 또박또박한 음성이 들려온다. 조명이 차단된 뒤에는 암흑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 깜박이는 가운데, 강단 있는 목소리가 동일한 메시지를 되풀이해 전달한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작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강렬한 시청각적 긴장감과 당혹감을 선사한 〈무체전(無体展)〉은 1970년 8월, 서울 소공동 국립공보관 화랑에서 열린 정강자(1942~2017)의 첫 개인전이다.

당시 정강자는 젊은 작가로 구성된 신전(新展) 동인, 제4집단 등 실험 미술 그룹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신체를 매체로 삼은 일련의 행위 예술, 이른바 '해프닝'을 선보여왔다. 보수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제도권 미술계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선보인 개인전 역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개념을 전복하는 것이었다. 정강자는 빛과 어둠, 소리와 연기 등 비물질적 요소로 총체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 놓인 관람객의 신체가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관람 경험 자체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서간 몰입형 전시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의 이데올로기적 긴장과 군사정권이 지배하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지나치게 닮은 탓이었을까. 이 전시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틀 만에 강제로 철거되고 만다. 이에 충격을 받은 작가는 한동안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회화로 전향한다.

정강자는 10여 년간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전통 염색 기법인 바틱을 익혔고, 중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회화에서 돋보이는 선명한 색채, 시원한 구도, 그리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장면에 풍부한 영감을 주었다. 그의 작업에서는 춤추는 여인, 모자상 등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재현된다. 여인의 초상은 종종 자연의 풍경으로 스며든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황토색 배경이 인상적인 '사하라'(2011)를 들 수 있다. 사막을 떠도는 여행자를 지켜보는 여인의 모습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떠올리게 하며, 스스로의 모습이 투영된 자화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복의 형상을 빌려 한국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작업도 눈에 띈다. 풀어헤친 저고리는 때로 우뚝 서 있는 산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한복의 치마는 산수화의 굽이치는 능선으로 재해석되어 화면을 누빈다.

2015년 위암 판정을 받은 후 투병 중에도 작가는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신체적 고통과 수술 경험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시 자신의 몸을 작업의 중심에 놓는다. 말년의 작업에서는 특히 우주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는데, 이는 만물의 근원적 형상을 탐구하는 기하학적 추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계기가 된다. 그 중심점인 '반원'은 이전부터 파편화된 신체나, 나풀거리는 치마폭의 운동감 등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했던 형태이기도 하다. 신체를 저항적 매개로 삼아 출발한 정강자의 여정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한한 화면 위에서 계속되어왔다. 그곳에서 몸은 더 이상 억압된 육체에 머물지 않고, 산이 되고, 대지가 되고, 우주의 일부가 된다.

글 **김연우**



1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2026. 5. 5~11. 29) 전시에서는 56년 만에 복원된 정강자의 '무체전'을 선보인다. AI의 도움을 받아 작가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사진 속 바닥 타일의 비례를 계산해 공간의 규모를 추산하는 등 최대한 당시에 가깝게 재구성했다. '무체전(無体展)'(1970), 국립공보관, 서울, 대한민국. 인조가죽, 로 포그 머신, 색 조명, 무빙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백열등, 라우드스피커, 작가의 목소리. 500×500×500cm. 2026. 서울 리움미술관 재구성. © Jung Kangja. 사진: 홍철기. 이미지 제공_리움미술관

2 '사하라(The Sahara)'(2011), Oil on canvas, 193.9×777.3cm. © Estate of JUNG Kangja, Courtesy of the Estate and Arario Gallery.





KIM Soun-Gui

김 순 기

비움으로 채워가는 무한한 순간에 찬미를

한동안 영화 평론가 이동진의 '기록하는 삶'에 대한 관점이 화제였다. 최근 유행처럼 번진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나 블로그에 주간 일기를 쓰고, 브이로그(v-log)를 남기는 오늘날의 문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붙잡는 데 열중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기록에 있어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이것이 삶을 포장하는 행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기록은 특별한 순간만 남기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이어 붙여 삶의 궤적을 그리는 일에 가깝다. 김순기(1946~)의 무용하고 느린 시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빛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나무 앞에 돌을 쌓거나 산책하다 발견한 새의 발자국을 그리는 등 반복적 일상은 작가만의 삶을 이루는 사소한 행위와 그 사이를 통과한 시간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기록은 김순기의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형식이지만, 이는 비디오라는 매체에서 정점을 이룬다.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에 정착하던 시기에 탄생한 '조형상황 I-III'(1971~1974) 연작은 회화라는 매체를 벗어나고자 한 작가의 초기 조형 실험을 보여주는 주요한 비디오 작업이다. 처음에는 캔버스 천이 설치된 야외 환경에 빛과 바람, 소리와 행인 등 여러 우연이 겹쳐 완성되는 대학 시절 작업 '소리'(1970)를 모태로 한 설치 작업에서 출발해, 이후 마리나, 모나코, 보르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 무대를 옮겨 본격적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행위를 담은 퍼포먼스/영상 기록 작업으로 발전해나갔다. '조형상황'은 물리적, 제도적으로 닫힌 예술의 구조를 벗어나, 참여자들이 자연의 소리, 빛과 공기의 움직임에 직접 접촉하는 열린 시공간으로 예술을 확장시킨다.

1980년대에 시작된 '바보사진' 연작은 감광액을 바른 필름이 담긴 상자에 바늘구멍을 뚫어 작가가 손수 만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다. 누구나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사진가가 될 수 있고, 초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진 시간 속에 수많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세상에서 작가의 작업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와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만 같다. 촬영에는 몇 분부터 한나절까지 걸리기도 하고, 적절한 앵글을 구현하거나 초점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색조나 명암을 보정하고 이미지를 크롭트하는 등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후반 작업 역시 생략되며, 최종 이미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결핍은 오히려 빛이 머문 시간이 스스로 흔적을 남기게 한다. 인위적인 통제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간들이 겹쳐 완성되는 흐릿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는 '바보사진'만의 고유한 미학을 획득한다.

이처럼 작가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김순기의 '무아(無我)'는 '바카레스 호수(Etang de Vaccares)'(1985)에서도 잘 드러난다. 작가는 지도 위에 무작위로 돌멩이를 던지고는 그것이 떨어진 곳으로 떠나 해당 장소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호수의 한 지점을 계속해서 비추는 화면은 조리개의 조작에 따라 눈을 감았다 뜨듯 어두워지고 밝아지기를 반복한다. 나른한 호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요한 수면 위에서 지난 시간과 다가올 시간은 하나로 이어지고, 작가의 시선과 작가의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글 **김연우**

1 '두개의 달'(1992)에는 카메라를 배치하고 회수하는 사이에 움직인 달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삼스럽지만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하며, 공기와 빛은 계속해서 흐른다. 김순기의 바보사진기는 이러한 자연의 시간을 조용히 담아낸다. '두개의 달(Deux Fois Lune)'(1992), Pinhole camera, analogue print, 108×80cm. © KIM Soun-Gu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2 바보사진 연작 중 하나인 '아뜰리에1'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진행된 개인전 〈김순기: 침묵의 소리〉(2023. 4. 4~5. 13)를 통해 선보인 바 있다. '아뜰리에1(Atelier 1)'(1996), Pinhole camera, analogue c-print, 105×87cm. © KIM Soun-Gu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3 '조형상황 III-2013 보르도의 10월'(1973), 단채널 비디오 (4:3), 마스터 필름 16mm, 10분 37초 © KIM Soun-Gu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KIM Yun Shin

김 윤 신

합(合)하고 분(分)하며 자라나는 나무의 세계

나무의 나이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어떤 예술은 긴 시간을 지나서야 제대로 읽힌다. 나무를 주재료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김윤신(1935~)은 70여 년에 걸쳐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구축해온 조각가다. 그럼에도 그가 국내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다. 재조명의 계기는 2023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김윤신: 더하고 나누며, 하나〉(2023. 2. 28~5. 7)였다. 미술계에서 큰 호평을 얻은 이 전시 이후 이듬해 그는 국제갤러리, 리만머핀과 공동으로 전속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했고, 올해에는 호암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 〈김윤신: 합이합일 분이분일〉(2026. 3. 17~6. 28)이 열리며, 한국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윤신에 대한 국내 미술계의 조명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오랜 세월 현지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삶의 궤적을 들 수 있다. 1983년, 조카를 만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을 찾은 그는 삶의 터전을 그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전쟁 이후 대형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한국과 달리, 알가로보나 팔로산토 등 다양한 수종이 자라는 풍부한 자연에서 자신의 조형 언어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명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주를 결심할 만큼 나무는 그에게 중요한 재료였지만, 처음부터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시절 한국 추상 조각의 선구자인 김정숙 교수에게 용접 기법을 배운 그는 졸업 후 한동안 부산에 머물며 철 용접 조각 작업에 몰두했다. 파리 유학 시절에는 석판화와 조각을 배우는 동시에 유리병, 바가지, 달걀 포장재 같은 일상의 사물을 활용한 작업을 통해 매체 실험을 하기도 했다.

나무가 그의 작업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다. 어린 시절 독립운동가인 오빠의 생사를 걱정하며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안녕을 빌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착안해 나무 조각을 돌탑처럼 쌓아 올린 '기원쌓기' 연작이 시작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나무 입상 조각 연작인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 分二分一)' 작업에 착수하며 평생 이어질 작품 세계의 토대를 다졌다. 아르헨티나로 기반을 옮긴 뒤에는 전기톱을 들고 거대한 나무를 베어내고 다듬으며 이 연작에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을 응축시켰다. 팬데믹으로 통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진 시기에는 자투리 나무와 각목, 판자 같은 폐자재를 조립하고 채색한 뒤 그 위에 다채로운 문양을 더하며 또 한번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혔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하나가 되고, 다시 나뉘어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은 '합이합일 분이분일'은 작가의 대표 연작명인 동시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작업 세계의 근간이다. 조각을 제작하기 전, 나무 안에 잠재된 형태를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진다.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나무는 그의 손끝에서 '합(合)'과 '분(分)'이라는 동양철학의 개념을 품은 조각으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더해진 강렬한 색채는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재료, 철학과 조형 언어는 작품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고, 관람객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의미로 '분'하며 확장을 거듭한다. 글 **양혜연**

1 '기원쌓기' 연작과 '합이합일 분이분일' 연작으로 시작하는 〈김윤신: 합이합일 분이분일〉 1층 전시 모습, 호암미술관, 2026. 사진: 전명은. 이미지 제공_호암미술관
2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分二分一) 1989-211', 1989, 오닉스, 45×87×55cm. 김윤신조형예술연구소 및 리만 머핀 제공 © Kim Yun Shin 사진: Studio Kukla, 이미지 제공_작가·국제갤러리·리만 머핀 **3** '진동 2018-56'과 '합이합일 분이분일' 연작. 작가는 2000년대 무렵부터 회화 작업에도 몰입하기 시작했다. 국제갤러리 K2 김윤신 개인전 〈Kim Yun Shin〉(2024. 3. 19~4. 28)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CHUNG Eun-Mo
정
은
모

감각적인 기하학이 빚어내는 온기 어린 공간

절제된 화면 위 엄격한 질서와 규율은 흔히 기하학적 추상을 '차가운 추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정은모(1946~)가 일찍이 한국을 떠나 뉴욕에서 공부하던 1960년대 중반, 미니멀리즘이나 옵아트, 하드에지 페인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향은 주요 미술관 전시를 통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은모의 회화는 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의 화면은 기하학적 추상의 제약적이고 명료한 형식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차갑고 닫힌 구조와는 다른 온화한 감각을 드러낸다. 강한 원색의 대비나 극단적 대칭 대신, 빛을 머금은 은은한 색채가 각기 다른 형태가 되어 화면에 놓이고, 마주한 색면들이 서로를 부드럽게 밀고 당긴다. 이들은 나뉘고 포개지며,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화면 속에서 그들만의 리듬으로 다채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정은모의 작업에서 선과 면은 단순한 장식적 배열이 아니라, 화면을 지탱하는 구조물로 작동한다. 이러한 조형 언어에는 작가가 뉴욕 이후 파리, 뮌헨을 거쳐 1980년대 말부터 정착한 이탈리아의 환경이 깊게 작용한다. 로마, 토스카나, 밀라노 등지에서의 체류는 고대 로마, 중세, 르네상스 건축과의 지속적 접촉을 가능하게 했고, 그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지중해의 강렬한 빛은 자연스레 화면의 색채 감각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회화에는 종종 건축적 구조가 감지된다. 이를 테면 반원형 변형 캔버스와 직사각형 캔버스를 결합한 작업은 색유리를 통과한 빛이 흘러드는 성당의 통창이나 스테인드글라스를 떠올리게 하며, 고전주의 건축의 프리즈나 건물 파사드를 연상시키는 화면도 종종 등장한다. 일부 작업에서는 문지방이나 미닫이문 같은 한국적 공간 구조가 겹쳐 나타나기도 한다.

오로지 선과 색면으로 이뤄진 화면에서 빛은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빛의 방향에 따라 살짝 비틀어지는 각도, 단계적으로 짙어지는 색의 농도, 어긋난 면의 배열은 평면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이를 구축하고 미세한 공간감을 조성한다. 하나의 색에서 출발해 다른 색을 덧씌우고 얹는 과정에서 조금씩 축적된 색채는 시간의 층위 속에 서서히 바랜 고대의 벽화나, 빛이 오래 머물다 지나간 자연의 표면을 닮았다. 이러한 색채의 상호작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감각과 장소를 환기하게 한다. 분명 그의 회화는 특정한 풍경이나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작가의 화면에서는 문 틀으로 들여다본 실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건물들처럼 무한한 공간적 환영이 펼쳐진다. 실내와 실외,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화면은 기억과 시간이 머무는 공간으로 관객을 이끈다.

공간을 담는 정은모의 회화는 작품이 놓인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더욱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일랜드 현대미술관(IMMA)에서 선보인 장소 특정적 회화 연작 'Parallel Windows'(1993)에서는 12점의 변형 캔버스가 설치된 짙은 푸른색 벽면이 캔버스의 연장선이 된다. 그 위에 걸린 회화는 오히려 작가의 작품 속 기하학적 형태처럼 읽히며, 닫힌 질서를 벗어나 공간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전환하는 열린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글 **김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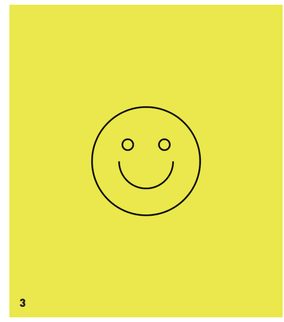


1 정은모의 회화에서는 삶의 환경에서 비롯된 건축적 요소가 종종 감지된다. 서양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부터 한국 전통 건축의 창호, 문지방까지.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감각을 자아내는 점이 흥미롭다. 'C2004AB'(2020), Oil on linen, 200×120cm. Courtesy of Gallery Baton **2**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No Object, No Subject, No Matter…〉(2002. 5. 9~9. 1) 설치 모습. 정은모의 기하학은 작품이 놓인 공간과 관계를 이룰 때 더욱 강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Parallel Windows'(1993), Oil on 12 shaped canvases, Dimensions: variable. Collection Irish Museum of Modern Art. Purchase, 1994. © Eun-Mo Chung. 이미지 제공_아일랜드 현대미술관
3 'C2508'(2025), Oil on linen, 135×95cm. Courtesy of Gallery Baton

HONG Seung-Hye
홍
승
혜







1 그동안의 작업을 총망라해 공간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변모시킨 국제갤러리 3관(K3) 홍승혜 개인전 〈복선伏線을 넘어서 II(Over the Layers II)〉 설치 모습. **2** 1997년 국제갤러리 서울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유기적 기하학' 연작을 선보였다. 'Organic Geometry', 1997, Polyurethane coated serigraphy on cardboard, polyurethane on wood, 19×76×1.8cm. Photo by Yang Seungw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3 최근작 '표정 연습'은 국제갤러리 부산에서의 개인전 〈이동 중〉(2026. 4. 24~6. 28)에서 전시됐다. '표정 연습', 2025, Animate, garageband 4 min. 16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1~3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미완의 레이어를 쌓아 만든 유기적 기하학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미완의 존재이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인정할 때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홍승혜(1959~)의 작업은 픽셀 기반의 래스터 이미지에서 벡터 이미지로, 평면에서 입체로, 정지된 화면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끊임없이 확장된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는 '아마추어 정신'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실패를 감수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 비어 있는 틈은 결핍이 아닌 가능성이며, 디지털 세계 안팎을 넘나들며 구축한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그 여백을 채운다.

'픽셀'로 대표되는 홍승혜의 작업은 초기 연작명이기도 한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단어로 설명된다. 네모반듯한 픽셀은 기하학적이지만, 각 픽셀이 세포처럼 모여 형태를 이루는 과정은 유기적이기 때문이다. 홍승혜가 래스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작업의 조형 언어로 삼은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 전까지 앵포르멜 계통의 회화나 콜라주 작업 등을 선보여오던 그는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시스템이 전산화되며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픽셀이란 새로운 조형 언어를 발견했고, 이를 패턴화하기 위해 포토샵을 다루면서 작업의 터전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다. 컴퓨터그래픽이 순수 미술의 언어로 여겨지지 않았던 1997년, 이 작업들을 모아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유기적 기하학〉(1997. 8. 26~9. 13)이란 전시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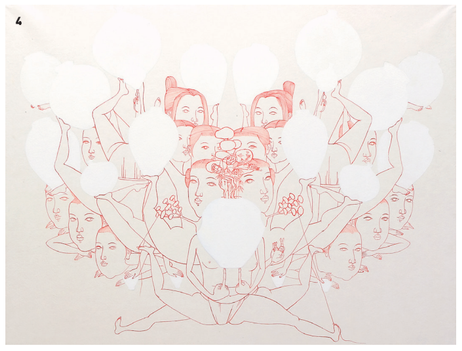
이후 그의 픽셀 이미지들은 생명체처럼 변모한다. 작가는 이미지를 액자 밖으로 꺼내 입체화하고, 때로는 다시 해체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더 센티멘탈' 연작을 통해서는 멈춰 있던 이미지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작곡 프로그램 개러지밴드 사용법을 익혀 직접 만든 사운드를 이후 작품의 요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진행한 개인전 〈복선伏線을 넘어서 II(Over the Layers II)〉(2023. 2. 9~3. 19)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한다. 포토샵 대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 벡터 형식으로 제작한 평면 작업과 이를 기반으로 창작한 입체 작업을 선보였다. 더불어 갤러리의 한 관은 그의 지난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총망라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치환했다. 무용수 픽토그램을 이용한 입체 작업, 일러스트레이터 기반의 꽃잎 입체 작업,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를 결합한 작업이 전시장 안에서 겹치고 호응하며 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시기의 주요 조형 언어가 공존하는 모습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지털 이미지 툴의 레이어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큰 원과 작은 원, 긴 선과 짧은 선, 곡선과 교차하는 선,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묘한 사운드까지. 기하학적 도형과 선은 모이고 흩어지며 유기적인 표정을 만든다. 홍승혜의 최근작 '표정 연습'(2025)은 그림판부터 개러지밴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구와 매체를 탐구하고, 이를 재배치하며 끊임없이 조형 언어를 확장해온 그의 작업 궤적과 닮았다. 조합에 따라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표정처럼, 그의 조형 언어 역시 고정된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언어는 앞으로도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것이다. 글 **양혜연**









1 국립현대미술관 (2012 올해의 작가상)(2012. 8. 30~11. 11) 설치 모습. '쌍둥이 성좌(Constellation Gemini)'(2012), Ceramic shards, epoxy, 24K gold leaf,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view. Constellation Gemini, MMCA Korea, Gwacheon, Korea, 2012. © MMCA Korea **2, 3** 도자의 상흔을 감싸는 금빛 선은 '금 간 자리'를 '금(金)으로 메운다는 언어유희에서 출발했다. '2014 TVW 2'(2014), 220(h)×100×110cm, Photo by Yang Ian.

4 '번식 드로잉 9(Breeding Drawing 9)'(2005). Cinnabar on Korean paper, 100×100cm. Photo by Kim Hyunjin.
※ 1~4 이미지 제공_마시모데카를로

Yeesookyung

이 수 경

부서진 세계에서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법*

도자기는 불순물을 걸러낸 흙에 물을 섞어 점토를 만들고, 이를 성형한 뒤 공기 중에 건조시킨 다음 고온의 불에 소성해 완성된다. 고대 철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흙, 물, 불, 공기)가 모두 관여해 탄생하는 셈이다. 제작 과정에는 점토의 수분, 가마의 온도, 불의 방향, 요변(窯變)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중 많은 부분은 만드는 이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도자기 장인은 완벽한 작품만 남기기 위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미세한 결함이 발견된 결과물을 깨뜨려 폐기한다. 그렇게 버려진 도자 파편은 이수경(1963~)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어 붙이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2001~) 연작은 인체와 비례가 비슷한 조각부터 압도적인 크기의 대형 설치, 작은 도자기의 군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선보여왔다. 마치 증식하는 유기체 같은 형상의 조각에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풍요로운 생명력이 느껴진다. 연작의 출발은 작가가 이탈리아 알비솔라 비엔날레에 참가했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한국 도자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도예가에게 조선시대 백자를 찬미한 시를 번역해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백자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물로 나온 작품은 동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12점의 화병이었다. 이는 이수경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 그리고 도예가의 머릿속 이미지와 실제 결과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차, 즉 '번역' 과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 작가는 장인들의 실패작 또한 완전한 재현에 이르지 못한 일종의 '오역'이라 보고, 그 지점에 개입해 자신만의 번역을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한때 화병, 접시, 차주전자, 항아리 등이었던 깨진 도자기 조각은 작가의 손길에 따라 서로 이어지고, 이들이 맞닿은 틈새는 금으로 메워진다. 두께와 넓이가 일정하지 않은 금빛 선들은 작가의 제스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생명체를 유지하는 혈관처럼 도자기 표면을 타고 흐르고 번진다. 도자기가 하나의 캔버스라면, 작가가 그려내는 금빛 이음매는 때로는 두꺼운 마티에르가 쌓인 회화로, 때로는 얇고 가느다란 드로잉의 선으로 나타난다. 귀한 물질로 여겨지는 금을 사용하는 것은 흠결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부각하기 위함이다. 경쟁과 완벽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이수경의 도자기는 '부서진 세상의 존재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묵묵히 전한다.

작가의 '번식 드로잉'(2005)은 한국의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바리공주에게 현정하는 작업이다. '버려진 아이'를 뜻하는 '바리데기'라 불린 공주는 일곱 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훗날 병든 부모를 살릴 약수를 저승에서 구해온 뒤 저승의 영혼 인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필요 없다고 여겨진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 이야기는 버려진 파편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재탄생한 그의 도자기 조각을 떠올리게 한다. '번역된 도자기'는 동양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고쳐나가는 치유의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서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부서짐은 이수경의 세계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조건이 된다. 그 과정에서 남은 상흔은 삶을 견뎌낸 아름다운 증거다. 글 **김연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onstrous Beauty: A Feminist Revision of Chinoiserie〉(2025. 3. 25–8. 17) 전시 큐레이터 앤 안린 창이 이수경의 도자기에 헌사한 '이수경의 최초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시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롯데콘서트홀

연결의 항해, 새로운 10년

공연장의 10년을 돌아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롯데콘서트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회고에 치중하기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내세웠다. 올해 10주년의 화두는 모든 장르와 시대, 취향을 연결하는 '통로'를 향한 항해다. 그 여정의 첫걸음에는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10 for 10'이 있다. 지난달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의 리사이틀로 상반기를 갈무리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조성진, 쿠렌치스, 아르헤리치 등 동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무대로 이어진다. 동시에 여름과 가을의 경계를 장식하는 음악 축제, 클래식 레볼루션과 오르간 시리즈 등도 기다리고 있다.



1 롯데콘서트홀 개관 10주년의 첫 문을 연 무대로 지난 1월 28일 정명훈과 1548년 창단되어 세계 '최고(最古)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호흡을 맞췄고,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자로 참가했다. **2**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출신의 대만계 호주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 Decca Records 2024 **3** 2026 롯데콘서트홀 인하우스 아티스트인 조성진은 체임버 콘서트(7. 14)와 피아노 리사이틀(7. 19)로 관객과 만난다. © Stephan Rabold **4** 오는 11월 내한 공연이 예정된 아르헤티나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무대에서 오랫동안 협업해온 지휘자 사를 뒤투아. 그리고 KBS 교향악단이 한 무대에 선다. © Adriano Heitman **5** 2016년 8월 문을 연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을 갖춘 빈야드 스타일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6** 해설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파이프오르간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롯데콘서트홀의 시그너처 프로그램 '오르간 오딧세이'에서 샌드아트와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1~6 이미지 제공_롯데문화재단

초연결 시대 클래식 연주자의 새로운 초상

무대 위 빼어난 연주자면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생산자이기도 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2백만 명이 넘는 팔로어와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그에게는 인플루언서라는 이미지가 먼저 따라붙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바이올린 리사이틀 전 롯데문화재단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묻어난 진지한 태도, 그리고 6월 4일 롯데콘서트홀에서의 열정적인 무대는 그 인상을 적잖이 바꿔놓았다. 먼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32번으로 시작된 무대는 밝고 투명한 결로 관객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다. 그는 1784년 초연된 이 작품에 대해 마감 직전까지 작품을 손보는 성향이 짙었던 모차르트가 황제(요제프 2세) 앞 연주를 앞두고도 직전까지 피아노 파트를 정서(淨書)하지 못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들려주며 자신도 비슷한 성향이라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그 너스레는 연주자와 청중의 거리를 좁히는 유쾌한 장치로 작동했다.

이어진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에서는 결이 사뭇 달라졌다. 앞선 모차르트의 밝고 투명한 음색 대신 보다 짙고 응축된 표현이 두드러졌다. 레이 첸은 선율의 흐름을 길게 가져가며 작품 특유의 서정성과 긴장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켰다. 바흐로 시작해 사라사테의 두 작품으로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특유의 현란한 기교를 펼치며 리듬과 에너지의 불꽃을 쉴 새 없이 터뜨렸다. 음을 밀고 당기는 미세한 텐션의 조절은 관객이 어느 순간 숨을 참은 채 그의 활이 그리는 유려한 움직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으로 치달은 신들린 듯한 후반부에서는 그 긴장이 극단까지 밀려 올라가며 폭포수 같은 박수를 끌어냈다. 세 차례 앙코르를 선사하며 마지막까지 팬 서비스에 충실한 레이 첸의 모습은, 오늘날 음악가에게 '진정성'은 점점 더 복합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현재의 조성진과 세계적 거장들

물론 오늘날 연주자의 초상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법이다. 바로 이 차이를 한 공간에서 함께 체감하게 하는 것이 공연장의 가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2016년 문을 연 롯데콘서트홀은 새로운 10년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을 장르와 시대, 취향의 경계를 잇는 '항해(passage)'라는 키워드에 담았다. 그 상징적 프로젝트가 바로 '10 for 10'이다. 음악적 성취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함께 담은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월 말 정명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임윤찬의 무대로 막을 올린 이래 여러 무대를 거쳤다.

올 하반기 '10 for 10'의 중심에는 조성진의 현재가 있다. 롯데콘서트홀이 2021년부터 운영해온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선정된 조성진은 7월 두 차례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입체적으로 펼친다. 2016년 개관 직후 국내 첫 단독 리사이틀을 이곳에서 열었던 만큼 롯데콘서트홀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7월 14일 열리는 체임버 콘서트에서는 세계 정상급 음악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브람스 실내악의 깊이를 탐구하는 무대를 꾸린다.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 가시모토 다이신을 비롯해 클라리넷 수석 벤젤 푹스, 호른 수석 슈테판 도어, 비올리스트 박경민,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등이 함께한다. 이어 7월 19일 리사이틀에서는 바흐, 쇤베르크, 슈만, 쇼팽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새 레퍼토리에 대한 음악적 탐색을 선보인다. 실내악과 독주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만나는 이 공연은 이번 시즌이 지향하는 '연결'의 의미를 보여준다.

하반기 라인업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만나는 무대로도 이어진다. 10월 22일에는 피란드를 대표하는 지휘자 유카페카 사라스테와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시벨리우스 해석의 전통을 이어온 사라스테와 헬싱키 필하모닉의 만남은 북유럽 음악 특유의 색채를 만날 드문 기회다. 11월 17일과 18일에는 테오도르 쿠렌치스와 유토피아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오른다. 쿠렌치스는 극단적 해석과 독창적 사운드로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반면 지나친 해석적 개입이라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시대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제성을 지닌 지휘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의 등장에서 개관 10주년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실험성과 확장성이 엿보인다. 이어 11월 21일과 22일에는 사를 뒤투아, 마르타 아르헤리치, KBS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무대가 기다린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아르헤리치는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오랜 세월 음악적 동반자였던 지휘자 뒤투아와의 만남은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들의 호흡을 직접 느낄 기회다.

클래식의 경계를 넓히는 항로

한편 '10 for 10'에는 롯데콘서트홀의 공간적, 음악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대도 포함된다. 10월 6일 열리는 '2026 오르간 시리즈 II. 올리비에 라트리 & 이신영 포핸즈'는 2명의 오르가니스트가 한 대의 악기에서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사운드를 통해 파이프오르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캐머런 카펜터의 무대에 이어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롯데콘서트홀의 상징적 악기인 파이프오르간을 중심으로 클래식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다.

경계를 넓히는 또 하나의 축은 여름의 마지막을 수놓을 프로그램 '클래식 레볼루션'이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한 이 축제는 초기에는 특정 작곡가를 중심으로 음악 세계를 탐구했다면, 2024년을 기점으로 주제와 연주자를 조명하는 축제로 방향을 바꾸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감독을 맡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이번에 제시한 주제는 '뿌리(origin)'다. 민속음악과 문화적 전통이 클래식 작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음악 언어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이번 축제에는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스타인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특히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김선욱이 체임버 뮤직 콘서트에 참여하며, 카바코스와 키릴 게르스타인, 수원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폐막 공연으로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기에 젊은 음악가와 관객의 새로운 만남을 모색하는 '엘 콘서트',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함께 파이프오르간을 탐구하는 '오르간 오딧세이'까지 더해진다. 롯데콘서트홀의 새로운 10년은 거장과 신예, 전통과 실험, 공연장과 관객을 잇는 폭넓은 항로 위에서 계속된다. 글 **고성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전시 트렌드

지금 우리는 어떤 전시에 열광하는가

문화 예술 애호가라면 요즘 전시를 보러 가는 이유가 작품 감상 하나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오늘날 미술관과 갤러리가 동시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담아내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변화가 존재한다. 관람객들은 작품 감상은 물론이고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며, 새로운 영감을 얻길 기대한다. 그 스펙트럼과 깊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전시를 기획하는 방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예술을 만나는 방식 역시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국 근현대 거장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재조명부터 참여형 전시 공간 구성, 다양한 굿즈까지.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의 관심사와 욕망이 반영된 풍경이다.





한국 근현대 거장에 집중된 관심

누군가는 이 키워드를 보고 '한 발 늦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 시발점은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 전시로 기획된 〈단색화(Dansaekhwa)〉(2015. 5. 8~8. 15)를 들 수 있다.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정상화, 권영우, 하종현, 정창섭의 주요 작품 70여 점을 아우르는 이 전시는 한국 단색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이는 장이었다. 전시가 열리기 몇 해 전부터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흐름은 있었지만, 세계인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특별전이었다.

〈단색화〉전이 한국 미술의 특정 사조에 주목하게 했다면, 2021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국가 기관에 기증한 2만3천여 점의 국내외 미술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한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중 1천4백여 점을 기증받은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같은 해 7월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2021. 7. 21~2022. 6. 6)을 서울에서 개최한 것. 가로 5m가 넘는 김환기의 대작 '여인들과 항아리'(1950년대)부터 이중섭의 '황소'(1950년대), 이성자의 '천 년의 고가'(1961) 등 57점의 명작을 한자리에 모은 이 전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시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시간당 30명씩으로 입장을 제한했음에도 총 24만8천7백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근현대 거장에 집중된 관심'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는, 국내 일부 주요 미술관의 행보가 눈에 띄게 적극적이어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서울시립미술관(이하 SeMA)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는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2026. 5. 19~10. 25)가 있다. SeMA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시 트랙인 '한국 근대 거장전'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전시다. 새 전시 트랙의 배경에 대해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한국 미술사의 정립과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근대 작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라며 "데이비드 호크니, 에드워드 호퍼 등 해외 거장의 작품을 소개한 해외 걸작전 트랙과 균형을 이루며 한국 근대미술의 성취를 오늘의 관점에서 폭넓게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첫 전시로 유영국 회고전을 택했다는 점은 이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1930년대 아방가르드 실험부터 1999년 절필작에 이르기까지 유영국이 60여 년간 구축한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다. 작가의 삶과 작업을 연대기적으로 조명하는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유화, 부조, 사진, 드로잉 등 1백70여 점의 작품과 자료를 선보이며, BTS RM의 소장품과 15점의 미공개작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에 9월 프리즈 서울 × 서울아트위크 기간에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해 DDP 외벽에 작품을 투사하는 '서울라이트 DDP'를 진행하는 등 미술관을 넘어 도시 공간으로 전시 경험을 확장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의 산자락에 아름다운 건축과 풍경을 품은 뮤지엄 SAN 역시 이배의 대규모 개인전 〈En attendant: 기다리며〉(2026. 4. 7~12. 6)를 진행 중이다. 개관 이래 최초의 한국 작가 개인전으로, 본관 입구부터 청조갤러리 로비·1·2·3관, 야외에 위치한 '무의 공간'까지, 전관에 걸쳐 전시가 펼쳐진다. 미술관의 공간적 이점을 살린 초대형 설치작이 특히 눈에 띄는데, 입구에 설치된 높이 8m, 폭 5m, 무게 7톤에 달하는 작품 '불로부터(Issu du feu)'는 엄청난 스케일로 관람객을 압도한다.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의 공간에 설치된 약 10m 규모의 브론즈 작업 '붓질(Brushstroke)' 6점은 한국적인 조형 언어와 자연이 맞물리는 풍경을 빚어내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현대미술의 계절인 가을을 앞두고 주요 미술관들은 한국 작가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잇따라 선보인다. 오는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천으로 만든 집 작업으로 유명한 설치미술가 서도호의 개인전이 열린다. 초기작부터 주요 작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그의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전시다. 리움미술관에서는 9월 구정아 개인전을 연다. 2024년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참여한 구정아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해외 거장 전시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대규모 연출이 이제 한국 작가 전시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데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향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는 배경이 작용한다. 동시에 글로벌 미술계에서 한국 작가들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전략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블록버스터 중심의 흐름 속에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전시가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양상도 나타난다.

오감으로 체험하는 참여형 전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의 소비 트렌드는 전시장 풍경도 바꾸어놓았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하는 공간 구성의 미학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형형색색의 띠가 전시장 바닥을 가득 뒤덮은 공간을 걷거나, 그 한가운데 서서 찍은 전시 인증 사진이 SNS에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이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린 마크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Mark Bradford: Keep Walking〉(2025. 8. 1~2026. 3. 1) 초입을 장식한 설치 작품 '떠오르다(Float)'다. 작가가 거리에서 수집한 전단과 광고 포스터, 신문지 등 도시의 부산물을 긴 띠 형태로 재단해 노끈으로 이어 붙인 뒤 전시장 바닥 전체를 덮도록 설치한 작품이다. 관람객은 그 위를 직접 걸을 수 있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표면이 미세하게 변형되는 과정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된다. 이로써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움직임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자가 된다.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그룹전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2026. 5. 5~11.29)은 관람객의 참여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2023년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에서 기획돼 세계를 순회 중인 이 전시는 미술사에서 오랫동안 누락되어온 여성 작가들의 선구적 환경 작업을 재조명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람객은 낯선 상황과 마주한다. 이제 막 돌을 지난 아기의 키만큼 지면에서 붕 떠 있는 빨간 비닐 구조물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는 야마자키 츠루코의 '빨강(Red)'으로 직접 몸을 낮춰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내부에서는 붉은 공간에 잠기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고, 외부에서는 안에 들어간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작품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질을 연상시키는 입구와 난소를 암시하는 고무 통로, 자궁을 닮은 중심부를 지나 밧줄과 왜곡 거울로 이루어진 출구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작품을 탐험하거나, 136kg의 거위털로 채운 백색 공간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는 등 시종일관 오감을 자극하는 작업을 만나게 된다.

과거 전시 관람의 기본은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눈으로 감상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시는 그 거리를 기꺼이 허문다. '보는 미술'에서 '체험하는 미술'로, 요즘의 전시는 감상의 문법을 새롭게 쓰고 있다.

작품의 특성을 반영한 감각적인 굿즈

지난 4월 열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나흘간 약 2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종교 박람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히 놀랄 만한 수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인기는 재작년 무렵부터 주목받았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힙한 굿즈다. 많은 이들이 가방에 키 링 하나쯤은 달고 다니는 요즘, 굿즈는 전시의 화제성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만 슬쩍 살펴봐도 다들 굿즈 만들기에 진심인 걸 느낄 수 있다. 유영국 회고전의 경우 조선일보 문화사업단과 손잡고 1백50여 종의 굿즈를 선보였다. 텀블러, 에코 백, 키 링 등 굿즈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물론 양말, 암막 양우산, 블록 크레파스 등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라는 유행어처럼 없는 게 없다. 물론 모든 미술관과 갤러리가 이토록 굿즈의 물량까지 공들일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수량은 콤팩트하게, 그러나 작가나 작품의 특성을 반영해 특별함을 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뮤지엄 SAN의 〈En attendant: 기다리며〉 굿즈다. 도자기 물잔과 접시, 우드 트레이와 젓가락, 쿠션, 인센스 등 총 6종을 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인센스다. "숯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동시에 나무와 불의 속성을 모두 품고 있는 숯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담았다"는 노은실 뮤지엄 SAN 학예교육실장의 말처럼 작가의 작업 세계를 일상의 감각으로 옮겨놓은 아이템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 중인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2025. 10. 2~2027. 1. 3)의 굿즈인 리추얼 스프레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에서 영감받은 '모네'는 연꽃 오일의 맑은 향에 시트러스의 싱그러움을 더했으며, 르누아르의 '노란 모자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앙드레(독서)'에서 착안한 '르누아르'는 장미를 중심으로 아이리스와 바이올렛이 어우러진 플로럴 향을 담아 작품의 인상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오늘날 전시는 예술과 라이프스타일, 소비문화의 접점에 서 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공간을 체험하고, 굿즈를 구매하며, 자신의 취향을 기록한다. 한국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과 참여형 전시, 감각적인 굿즈의 인기는 모두 전시가 종합적인 문화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시는 때로 하나의 브랜드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작품 자체보다 인증 사진이나 굿즈가 더 큰 화제가 되는 현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전시의 가치는 화제성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경험이 관람객에게 남기는 질문과 기억의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2026 한국 근대 거장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기념 블록 크레파스. 이미지 제공_조선일보. 1백50여 종의 굿즈를 선보였다. **2** 총 6종으로 출시된 굿즈 중 인센스에는 이배의 작업 세계를 대표하는 매체 '숯'의 특성을 담았다. 이미지 제공_Museum SAN

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 중인 전시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의 굿즈인 리추얼 스프레이는 작품의 인상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1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파트 3 모습. 사진: 김상태 ©서울시립미술관 **2** 무의 공간에 전시된 이배의 작품. '붓질(Brushstroke)', 1,100×40×40cm(each) 6ea, Bronze, 2026. © Museum SAN, Photo by Sangtae Kim. 이미지 제공_Museum SAN. 약 10m 규모의 작품 6점이 강원도의 산세와 조응하며 만들어내는 풍경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3** 서도호, 'Nest_s', 410.1×375.4×2,148.7cm, 2024, Courtesy by dohosuh studio.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올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세계적인 작가 서도호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1 마크 브래드포드, '떠오르다(Float)', 2019, 혼합 재료, Courtesy of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사진: 김경태, 이미지 제공_아모레퍼시픽미술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 표면의 형태가 조금씩 변한다.

2 야마자키 츠루코, '빨강', 아외 구타이 미술전, 아시아 공원, 아시아, 일본, 1956, 볼트, 전구, 금속 장치, 비닐, 전선, 목재, 270×360×360cm, 1985,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재구성, 야마자키 츠루코 재단 대여, 오사카 LADS 갤러리, 도쿄 타케 니나가와 제공. © Tsuruko Yamazaki. 사진: 홍철기, 이미지 제공_리움미술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마이너는 정말 마이너인가?

우리 인류는 어디서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가 인간의 창작과 인식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는 21세기의 한복판에 있다. 세계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에 놓인 지금,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어째서 '단조로(In Minor Keys)'라는 주제 아래 여전히 '작은 목소리'를 이야기하는가.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미술전이 진행되고 있는 베니스의 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전쟁, 이주, 상실, 공동체 같은 인류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왜 여전히 '마이너'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현실이 등장하기 시작한 오늘날 진정한 주변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한다.

팬데믹을 계기로 일정이 조정되며 홀수 해엔 건축전, 짝수 해엔 미술전이 열리는 체제로 재편된 베니스 비엔날레. 그중 올해로 61회를 맞이한 국제미술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지닌 행사로 '미술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올해의 베니스 비엔날레(2026. 5. 9~11. 22)는 개막 전부터 갖가지 이슈가 휘몰아치며 마치 세계 정치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첫 아프리카 출신 여성 총감독으로 선임되며 주목받은 큐레이터 코요 쿠오(Koyo Kouoh)가 지난해 갑작스레 사망한 비보를 비롯해 러시아와 이스라엘 국가관을 둘러싼 논란, 심사위원 사퇴, 반전 시위와 일부 국가관의 일시 폐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전시 주제인 'In Minor Keys' 자체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전시는 다아스포라, 탈식민주의,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와 치유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이러한 담론은 이미 국제 현대미술의 '중심(major) 언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적 모순을 드러냈다.

서로 다른 결의 국가관 전시가 늘 흥미로운 '지아르디니'

베니스 비엔날레의 공식 루트는 크게 여러 나라 국가관이 모여 있는 지아르디니(이 글에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룬 한국관은 담지 않았다), 그리고 본전시가 진행되는 아르세날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물론 무수한 장외 전시가 기다린다). 올해의 화제로 떠오른 국가관은 단연 플로렌티나 홀칭거(Florentina Holzinger)의 전시 〈바다 세계 베니스(SEAWORLD VENICE)〉를 선보이고 있는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관객이 국가관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입구 위에 매달린 거대한 종(鐘)이다. 퍼포머가 종의 추에 거꾸로 매달린 채 자신의 몸으로 종을 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선다. 내부로 들어서면 전시장은 더 이상 국가관이라기보다 수 처리 시설과 놀이공원, 종교 건축이 결합된 거대한 기계 생명체처럼 보인다. 물이 흐르고 수조가 놓인 공간에서 퍼포머들은 제트스키를 타고 원형 수조를 돌거나 높은 기둥 위에 매달린다. 어떤 이는 투명한 수조 속에 잠수한 채 머물고, 어떤 이는 르네상스 제단화의 성인처럼 공중에 떠 있다. 관객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의 오수(汚水)가 정화 과정을 거쳐 퍼포머가 머무는 투명 수조로 순환되는 장면은 물과 오물, 정화와 오염, 성스러움과 육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뒤섞이는 과정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전시는 거대하고 충격적이며 압도적이었다.

일본관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곳에는 소소하고 일상적이며 극적인 퍼포먼스도 없다. 대신 아라카와 에이 내시(荒川医+ナッシュ, Ei Arakawa-Nash)의 〈풀의 아기들, 달의 아기들(Grass Babies, Moon Babies)〉이 펼쳐지며 전시 공간 곳곳에 배치한 선글라스를 낀 아기 인형 수백 개가 관객을 맞이한다. 어떤 인형은 벽에 기대어 있고, 어떤 인형은 바닥에 앉아 있으며, 관객은 인형을 안고 전시장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고 귀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불안감이 스며든다. 관객은 어느 순간 전시를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전시장 전체는 거대한 보육 시설이자 미래의 폐허처럼 느껴진다. 획일화된 표정과 동일한 규격의 아기 인형들은 미래 사회의 생명 재생산 시스템과 저출산 위기를 체험하게 한다.

반면 중국관 〈夢溪(몽계)〉는 미래 지향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공간이다. 전시는 북송의 과학자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을 출발점으로 삼아 1천 년 전의 지식 체계와 오늘날의 AI를 연결한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고전적 사유가 알고리즘과 생성형 AI 이미지로 끊임없이 변환되고 있다. 한쪽 벽면에는 폭 16m, 높이 6.5m에 이르는 왕동령의 대형 서예 설치 작품 '소요유(逍遙遊)'가 시선을 절로 사로잡는다. 장자의 〈소요유〉를 적은 이 작품은 자유분방한 필의(筆意)와 역동적인 필세(筆勢)를 통해 거대한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장을 형성한다. 먹의 농담과 속도감 있는 필획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한 자연의 에너지와 산수의 유동적 흐름을 연상시키며, 문자와 이미지, 서예와 퍼포먼스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 앞에서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왕동령의 필체를 학습해 '夢溪(몽계, Dream Stream)'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써 내려간다. 1천 년의 문인 정신과 AI가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토록 많은 작업 속 작가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울리는가?

아르세날레 본전시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작품은 칼레드 삽사비(Khaled Sabsabi)의 '자아와의 회의(Conference of the Self)'다. 8개의 채색 패널로 구성된 약 40m 길이의 '칼릴(Khalil, 벗)'은 거대한 숲이나 폭풍 속 소용돌이처럼 전시 공간 전체를 감싼다. 화면은 수없이 많은 선과 기호가 중첩된 거대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과 손, 건물의 파편, 기도하는 인물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드러난다. 작품은 12세기 페르시아 시인 파리드 아타르(Farid Attar)의 〈새들의 회의(The Conference of the Birds)〉를 바탕으로 한다. 원작에서 새들은 새의 왕 시모르그(Simorgh)를 찾아 7개의 세계를 여행하지만, 결국 답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삽사비는 여기에 여덟 번째 영역인 '자아(self)'를 더한다. 관객은 작품 안에서 순례를 수행하고,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알프레도 하르(Alfredo Jaar)의 '세계의 끝(The End of the World)'은 제목이 암시하는 거대한 스펙터클과 정반대 작품이다.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것은 한 변이 겨우 4cm에 불과한 작은 정육면체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 작은 물체가 코발트, 희토류, 구리, 주석, 니켈, 리튬, 망간, 콜탄, 게르마늄, 백금 등 디지털 문명과 군사 산업, 친환경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광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품의 힘은 극단적인 규모의 역전에 있다. 작은 큐브 안에는 광산과 채굴 현장, 전쟁 지역, 심해 채굴 구역, 배터리 공장과 반도체 산업, 미래의 우주 채굴 계획까지 응축되어 있다. 반짝이는 금속 표면 뒤에는 콩고의 콜탄 광산과 리튬 채굴지, 파괴된 생태계와 노동 현장이 숨어 있다.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과 전기차, AI 서버와 클라우드는 사실 이 작은 큐브에서 시작된다. 전쟁도, 친환경 산업도, AI 혁명도 결국 이 광물들을 둘러싼 경쟁 아래 작동한다. 하르는 거대한 재난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신, 재난의 원인인 물질 자체를 제시한다.

필자는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오프닝 기간 동안 30명이 넘는 작가를 인터뷰했지만, 놀랍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먼저 언급한 작가는 거의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n Minor Keys'의 개념적 모순이 드러난다. 코요 쿠오 총감독은 생전에 음악의 단조에서 따온 이 문구를 설명하며 "우리가 지금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놓치고 있는 낮은 주파수, 작은 목소리, 감각적 리듬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의 의도는 제대로 펼쳐지고 있을까? 전쟁, 이주, 상실, 공동체, 치유는 결코 '마이너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호메로스에서 성서와 불교 경전,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을 관통해온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메이저' 서사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무엇을 전시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마이너'라고 부르는가를 묻게 된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는 국제 미술계의 주변부 담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비엔날레와 도쿠멘타, 미술관과 대학, 출판계를 통해 국제 현대미술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급진성은 제도의 상식이 되었고, 비판은 문화적 합의가 되었다. 〈아트 리뷰(Art Review)〉의 제니 우는 이번 전시를 '구체적 요구가 없는 항의'이자 '쟁명력을 잃어가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평가했으며, 가디언(The Guardian)의 에디 프랭클 역시 '세상은 전쟁과 AI로 재편되고 있는데 비엔날레는 우리에게 휴식을 권한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전시의 완성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주변부'로 규정하고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하는가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쟁점 중 하나는,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 인식 틀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과 3차원 공간에서 세계를 경험하지만, AI는 경험 없이 수백, 수천 개의 차원에서 관계를 연산하며 고차원적 현실을 해석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의 인식 체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알고리즘 권력은 어떤 새로운 식민주의를 생산하는가', '인간 이후의 예술은 가능한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메이저도 마이너도 아닐지 모르겠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사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메이저이자 마이너이며 동시에 포스트-마이너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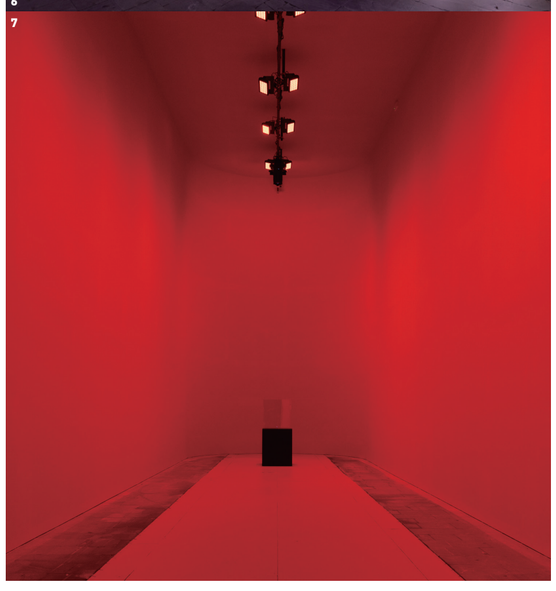
글 **심은록**(AI 영화감독, 미술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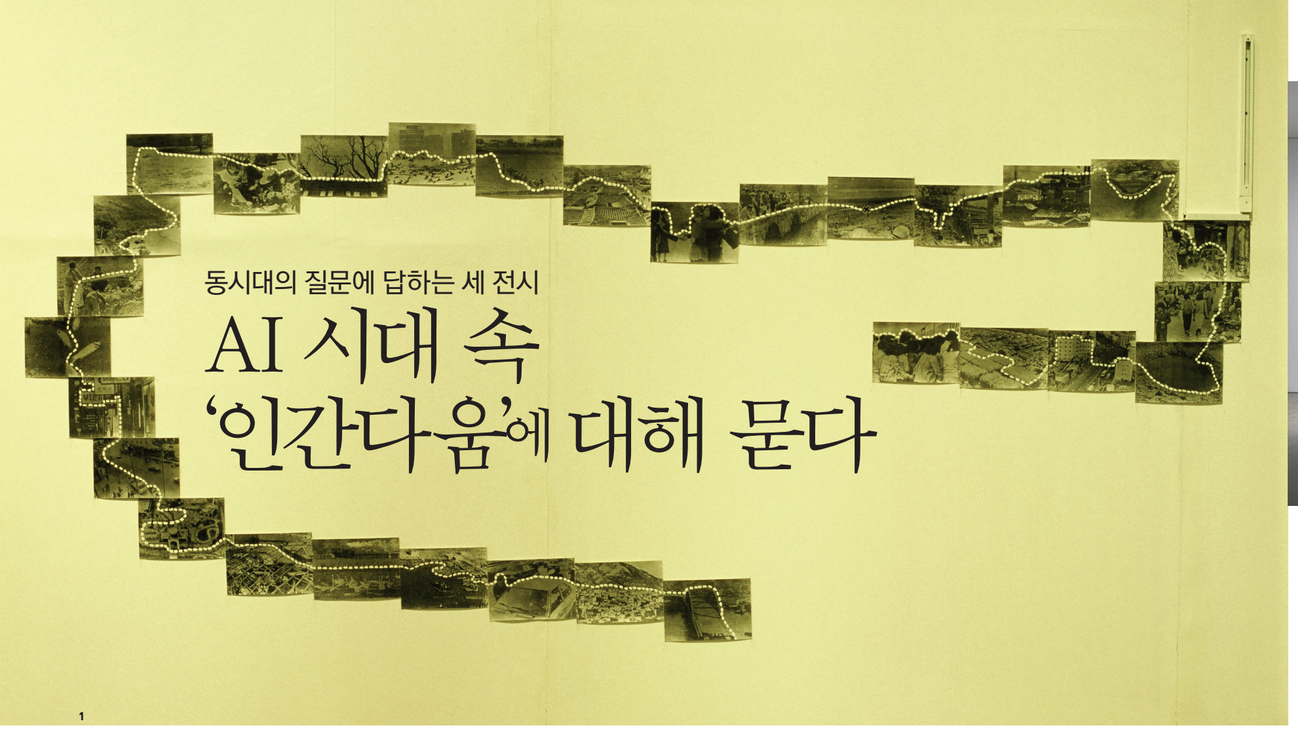






1 오스트리아 국가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Photo by Sim Eunlog. 관람객이 전시장 양쪽의 이동식 화장실에서 사용한 오수는 정화 과정을 거쳐 중앙의 투명한 유리 수조로 순환된다. 수조 안에서는 퍼포머가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2** 플로렌티나 홀칭거(Florentina Holzinger), 〈바다 세계 베니스(SEAWORLD VENICE)〉, 오스트리아 국가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In Minor Keys'. 사진: Andrea Avezzù, 이미지 제공_베니스 비엔날레. 거대한 종의 추에 매달린 퍼포머가 자신의 체중과 움직임으로 울린 종소리를 통해 관객은 인간의 신체가 기계장치의 일부로 기능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3**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 한국관 모습, 2026. 사진: 감동환. © 2026 Korean Pavilion. 이미지 제공_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한국관은 최빛나 예술감독, 노혜리· 최고은 작가가 참여해 역사적 과도기이자 현재진행형의 운동 공간인 '해방공간'의 임시적 기념비로 제시했다.

4 아라카와 에이 내시(Ei Arakawa-Nash), 〈풀의 아기들, 달의 아기들(Grass Babies, Moon Babies)〉 일본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In Minor Keys'. 사진: Andrea Avezzù. 전시장 외부와 내부 곳곳에는 관람객이 직접 안거나 옮길 수 있는 아기 인형 수백 개가 흩어져 배치되어 있다. 고정된 설치물이 아니라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환경인 셈이다. **5** 왕동령, '소요유', 중국관,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Photo by_Sim Eunlog. 장자의 〈장자〉 '소요유' 편에서 가져온 글귀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폭 16m, 높이 6.5m 규모로 제작되었다. 굵고 빠른 필획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며, 개별 문자를 읽기보다 거대한 흐름과 리듬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6** 칼레드 삽사비(Khaled Sabsabi), '칼릴(Khalil)', 2026, 8채널 HD 비디오 설치, 사운드, 캔버스 위 아크릴, 철제 구조물, 블랙 우드(oud) 향, 1,300×1,300cm, 64분.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In Minor Keys'. 사진: Marco Zorzanello. 8개의 대형 패널로 구성된 약 40m 길이의 회화·영상 설치 작업이다. 관람객은 패널 사이를 걸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상 이미지와 사운드, 블랙 우드(oud) 향이 결합된 몰입적 환경을 경험한다. **7** 알프레도 하르(Alfredo Jaar), '세계의 끝(The End of the World)', 2023-2024, 코발트, 희토류(네오디뮴), 구리, 주석, 니켈, 리튬, 망간, 콜탄(니오븀), 게르마늄(아르젠티움), 백금, 4×4×4cm.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In Minor Keys'. 사진: Luca Zambelli Bais.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친환경 산업의 핵심 광물들을 압축해 제작한 한 변이 4cm에 불과한 작은 정육면체 큐브가 놓여 있다.
※ 4, 6, 7 이미지 제공_베니스 비엔날레



동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세 전시

AI 시대 속 '인간다움'에 대해 묻다

생성형 AI 대화창에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하면 지브리 애니메이션풍 이미지부터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까지 완성된다. 생성까지는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하는 AI의 생산성은 경이롭다. 그러나 그 '눈부신 변화'는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AI가 창조와 사고의 영역까지 넘보는 시대,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피할 수 없는 기술 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탐색하며, 그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시가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세 전시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간다움의 경계를 따라가본다.





1 성능경, '현장 6', 1981, 젤라틴 실버 프린트, 19.1×27.5cm(30).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사진: 넷째
2 노송희, '드리프트 드래프트', 2026,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엽서, 영상: 4시간 53분, 엽서: 14.8×10.5cm. 서울시립미술관 제작 지원. **3**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알렉사에게〉 전시 모습. 사진: 남기용 ※ 1~3 이미지 제공_서울시립미술관

얼마 전 SNS에서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4〉의 미방분으로 공개된 소설가 김애란과 언론인 손석희의 대화 장면이었다. AI 사용 경험에 대한 이야기 중 'AI와 인간의 차이점을 묻는 손석희의 질문에 김애란은 "인간한테 있고 AI에는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망설임"이라 답했다. 빠르고 유려한 AI의 조언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그녀의 말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한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기에 지닌 불완전함이라는 역설을 일깨운다.

알고리즘 너머의 시선

인간의 불완전함이 AI 시대에 어떤 가능성을 지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인간과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진행 중인 그룹전 〈알렉사에게〉(2026. 3. 26~7. 26)는 신문과 라디오가 정보 탐색의 중심 기술이었던 과거부터 생성형 AI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온 정보 탐색 과정을 되짚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정보 탐색이 자동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든다.

전시는 이메일 인터페이스에서 착안한 '보낸 편지함'과 '받은 편지함',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뉜다. 보낸 편지함은 성능경, 전소정, 강동주, 남화연, 노송희, 구동희의 작품을 바탕으로 기술을 매개로 얻은 정보와 현실 사이의 낙차를 주로 조망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전소정의 '유령들'(2017)과 노송희의 '드리프트 드래프트'(2026)가 있다. '유령들'은 작품을 진행하던 당시 유럽에 체류 중이던 작가와 부산에 거주 중이던 동료 작가 시라엘이 소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작업이다. 이들은 이미지는 이메일로, 텍스트는 우편으로만 보낸다는 독특한 원칙을 세우고 서로의 소식을 전했다. 어떠한 설명 없이 보낸 이미지에는 의미가 결여되고, 뒤늦게 도착한 텍스트는 시의성을 상실하며 공백을 만든다. 이처럼 엇갈린 정보의 흐름은 정보를 매개하는 방식이 우리의 현실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며, 현실과 정보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 노송희 '드리프트 드래프트'는 작가가 독일 여행에서 우연히 구한 꽃 사진 엽서를 평판 스캐너로 스캔한 뒤, 이를 다시 인쇄하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담았다. 재현과 복제가 반복되는 동안 점점 사라지는 원본 이미지는 실재와 재현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다.

한편 받은 편지함은 한 시대의 편린을 수집하고 인덱스 형식으로 재구성한 강동주, 백정기, 성능경, 전소정의 작업을 소개한다. 그중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기사에서 수집한 30컷의 사진에 임의의 점선을 추가한 후, 이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궤적으로 연결한 성능경의 '현장 6'(1981)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단절된 사건들을 하나의 지도처럼 엮어낸 이 작업은 무관해 보이는 사건이 모여 한 시대의 풍경을 이룬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AI 시대에 정보 너머의 연결을 '발견'하는 시선은 인간의 몫임을 환기한다.





1 국제갤러리 K1 〈진동하는 사물들〉 설치 모습. 전시 기획자이자 작가로 참여한 구본창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2** 구성연의 '설탕' 연작은 사진이 프레임에 담기기 전후로 이어지는 긴 시간을 상상하게 만든다. 국제갤러리 K2 1F 구본창 사진 기획전 〈진동하는 사물들〉 설치 모습. ※ 1~2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사물의 시간까지 기록하다

19세기,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진은 현실을 기록하는 도구로 여겨졌지만, 수많은 사진가의 실험과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하며 예술 장르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진만큼이나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기술이 등장하며 오늘날 사진은 존재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갤러리 서울의 〈진동하는 사물들〉(2026. 6. 9~7. 19)은 사진이 AI 이미지와 구별되는 감각적 조건을 묻는 전시다. 전시를 기획한 구본창을 비롯한 국내 대표 사진가 9인의 그룹전으로, 과도한 디지털 후보정이나 AI 기술 없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물을 해석해 프레임에 담은 전시 작품은 사진만이 지닐 수 있는 감각을 되짚는다. 사물 각각의 고유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구본창, 우연한 순간과 이를 필연적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 사이에서의 망설임을 담는 정희승 등 각 작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선을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성연과 조선희는 보다 직접적인 화법으로 AI 기술과 대치하는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먼저 구성연의 '설탕' 연작은 직접 설탕을 녹여 보물처럼 반짝이는 오브제를 만들고 촬영해 실제와 가상, 영원과 순간, 이상과 허상의 경계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명한다. 작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브제를 정성 들여 만들고, 촬영 후 서서히 녹아 소멸하기까지의 과정 등 작품이 프레임에 담기는 찰나의 전후로 이어지는 긴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이는 실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이미지만 남기는 AI 작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백이다. 조선희의 'Planet'(2024~2025) 연작도 마찬가지다. 부패하며 형태를 잃어가는 과일을 작은 행성처럼 포착한 작업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 만든 흔적과 생명의 유한함까지 작품의 일부로 끌어안는다. 이로써 완성된 이미지만 제시하는 AI와 구별되는 사진만의 고유한 감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과정 속 이야기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불완전함은 어떻게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남산의 문화 예술 공간 피크닉에서 진행 중인 헬싱키 기반 디자인 스튜디오 콤파니의 전시 〈COMPANY World Affair〉(2026. 4. 3~9. 6)는 이 질문에 답이 되어줄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들은 AI 기술보다 더 근원으로 돌아가, 효율과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디자인계에 반기를 들고, 창작 과정 중 발생한 우연과 불완전한 협업의 흔적까지 창작의 일부로 끌어안는다. 한국인 아무 송과 핀란드인 요한 올린으로 구성된 디자이너 듀오 콤파니는 20여 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 장인들과 협업하는 '시크릿 프로젝트(Secret Project)'를 진행해왔다. 프로젝트는 핀란드, 한국, 러시아, 멕시코, 일본, 페루, 파키스탄, 미국, 인도 등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고유의 재료와 기술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두 작가는 직접 그린 드로잉을 매개로 현지 장인과 소통하며 장인의 작품 세계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조심스레 덧입힌다. 전시에서는 파키스탄의 종교적 규율에 대한 존중을 담은 목조각 시리즈, 일본 전통 목각 인형 '고케시'에서 영감받은 조각 작품 등 전 세계를 횡단하며 이뤄진 시크릿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한다. 이 중에는 영천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장인과 협업해 목탁을 재해석한 작품, 15년 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대나무 장인과 재회해 만든 대나무 모자 등도 자리한다. 각 작품은 저마다의 특색과 전통, 매력을 지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천목탁과의 협업 작업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간판의 상호를 '영짠목탁이라고 잘못 적은 요한의 드로잉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이 실수는 멀고도 낯선 한국의 영천이란 지역에 와서 종이와 펜, 그리고 서툰 한국어 실력에 의지하며 문화를 배워나가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한국어를 옮겨 적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불완전함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우리는 전체가 과정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 아니던가. 과정에서만 허락되는 망설임과 실수, 그리고 긴 시간을 견디는 일은 분명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온 것은 언제나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였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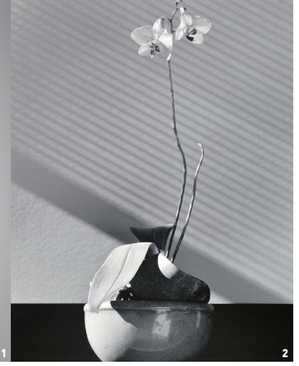






1 영천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장인과 함께 목탁을 재해석한 작품은 실제로 이를 두드리는 사운드와 함께 설치됐다. **2** 일본, 파키스탄 등 각국의 장인과 협업해 진행한 '시크릿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3**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옥상에는 '휴먼 버드'를 설치했다.
※ 1~3 〈COMPANY World Affair〉 전시 모습. 이미지 제공_pik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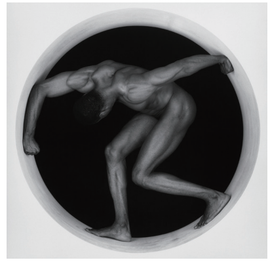


1 국제갤러리 한옥 로버트 메이플소프 개인전 〈형태의 시학〉 설치 모습. 사진: 안천호 **2** 로버트 메이플소프, 'Orchid', 1987, Silver gelatin, 61×50.8cm(24×20in.) ©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 1~2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고즈넉한 한옥에서 만나는 정제된 아름다움

로버트 메이플소프 〈형태의 시학(The Poetics of Form)〉 국제갤러리 한옥

꽃, 초상, 정물 등 고전적인 피사체부터 BDSM과 퀴어 문화, 그리고 당시에는 터부시된 흑인 누드까지 프레임에 담으며 20세기 후반 사진계를 뒤흔든 로버트 메이플소프(1946~1989)의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2021년 국내 첫 개인전 이후 5년 만의 전시다.
이번 전시는 로버트 메이플소프 작품의 정제된 형식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의 작업 세계에서 형식미는 특성이 극명하게 다른 대상을 일관된 분위기로 엮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남긴 "사진은 말하자면 조각을 만드는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말처럼 그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필요에 의한 기록물이나 우연히 발견된 이미지가 아닌, 치밀한 계산에 따라 탄생한 순수 예술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예술적 지향 아래 그는 빛과 그림자를 정교하게 통제하고, 그리스·로마 시대 조각상의 조형미와 비례감, 구성 원리를 충실히 반영해 촬영했다.
메이플소프 특유의 형식미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작품 'Thomas'(1987)에서부터 여실하게 드러난다. 커다란 원형의 구멍이 뚫린 구조물 안에서 신체를 이용해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흑인 남성의 누드를 담은 이 사진은 고대 조각을 연상시킨다. 가로세로 약 54인치(137.2cm)에 달하는 크기도 웅장함을 더하는 데 한몫한다. 이는 흑백사진의 명암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특화된 젤라틴 실버 프린트 기법으로 인쇄할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을 포함해 국제갤러리와 재단의 협력으로 구현한 3점의 오버사이즈 젤라틴 실버 프린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물, 누드, 꽃, 풍경 등 작가 특유의 미학이 담긴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고즈넉한 한옥 곳곳을 채운다. 고전적 형식미를 품은 사진과 한옥이라는 전통 공간이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클래식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임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전시명 〈형태의 시학(The Poetics of Form)〉 **전시 기간** 7월 19일까지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한옥



로버트 메이플소프, 'Thomas', 1987, Silver gelatin, 137.2×137.2cm(54×54in.) ©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Used by permission.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Exhibition in Focus

미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 수전 손태그는 "사진을 수집하는 건 세계를 수집하는 것(To collect photographs is to collect the world)"이라고 말했다. 프레임에 담긴 세계에는 작가의 시선과 기억,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 함께 새겨진다. 그래서 사진은 현실에 대한 기록물인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올여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포착한 사진 거장들의 전시가 관람객을 만난다. 금기시되던 주제를 고전적인 형식미로 승화한 흑백사진의 거장 로버트 메이플소프, 평범한 일상을 특유의 유머와 선명한 컬러로 담아낸 마틴 파의 전시가 국제갤러리 한옥과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부부이자 동료 예술가인 빔 벤더스와 도나타 벤더스가 서로 다른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을 한 공간에 펼쳐 보인다.
이 전시들은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프레임에 담을 것인가보다, 어떤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는가임을 일깨운다.

세계를 바라보는 2개의 시선이 만들어낸 대화

빔 벤더스 & 도나타 벤더스 〈Two Pairs of Eyes〉

에른스트 라이츠 뮤지엄

도시의 구조와 질서를 선명한 색채로 담아낸 한 장의 사진과 현실 풍경을 흑백의 몽환적 분위기로 표현한 또 다른 한 장의 사진. 같은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이 두 사진은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룬다. 부부이자 동료 예술가 빔 벤더스(1945~)와 도나타 벤더스(1965~)가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이어서다. 독일 소도시 베츨라어에서 진행 중인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의 사진전 〈Two Pairs of Eyes〉는 서로 다른 시선이 만들어내는 두 예술가의 작업을 하나의 대화처럼 펼쳐 보인다.
평범한 일상에 바치는 찬미와 같은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비롯해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등을 연출하며 현대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영화감독이자 사진가 빔 벤더스는 여행지와 영화 촬영지에서 마주한 풍경과 건축물을 선명하고 다채롭게 담아낸다. 그의 사진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영화와 연극을 전공하고 촬영감독으로 활동하다 1995년부터 사진 작업에 전념해온 도나타 벤더스는 빛과 그림자, 인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한 시각언어를 선보인다. 크로스페이딩, 다중 노출, 장노출 등의 기법을 이용해 장면을 꿈결 같은 질감으로 빚어내는 것도 특징이다. 각자의 영역을 꾸준히 구축해온 이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동일한 세계가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와 감각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명 〈Two Pairs of Eyes〉 **전시 기간** 9월 20일까지 **전시 장소** 에른스트 라이츠 뮤지엄(Ernst Leitz Museum)

1 Wim Wenders, 'Woman in the Window', Los Angeles, USA 1999 from the exhibition: Two Pairs of Eyes. Photographs by Donata and Wim Wenders, Ernst Leitz Museum, Wetzlar 2026. **2** Donata Wenders, 'The Bridge', Hangzhou, China 2024 from the exhibition: Two Pairs of Eyes. Photographs by Donata and Wim Wenders, Ernst Leitz Museum, Wetzlar 2026.
※ 1~2 이미지 제공_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Martin Parr, 'Benidorm, Spain', 1997 © Martin Parr/Magnum Photos

5백여 점의 작품으로 돌아보는 영국 사진 거장의 예술 세계

마틴 파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전관

지난해 말 전해진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마틴 파(1952~2025)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 사진계에 깊은 애도를 불러왔다. 그는 1980년대 초 흑백이 일반적이던 다큐멘터리 사진계에서 채도 높은 컬러 사진을 통해 영국 대중문화의 키치함과 소비사회 속 인간의 과장된 욕망을 날것 그대로 담아내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마틴 파는 평범한 일상을 포착해 그 이면에 자리한 사회적 아이러니를 드러냈다. 이 스타일을 대표하는 주요 연작 중 하나는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마지막 리조트(The Last Resort)'다. 당시 영국 노동자계급이 주로 찾는 휴가지였던 뉴 브라이턴 비치의 풍경을 담은 1980년대 초기작으로, 낭만적인 휴가지의 모습 대신 쓰레기, 권태로운 표정의 피서객 등은 영국 사회의 현실, 나아가 현대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밖에도 '삶의 비용(The Cost of Living)', '작은 세계(Small World)', '상식(Common Sense)' 등 다양한 연작을 통해 무거운 현실을 위트 있고 키치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작고한 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순회 회고전이다. 그의 커리어 초기부터 말년까지 아우르는 14개 대표 연작의 작품 5백여 점과 관련 도서 89권을 선보이며, 일상에 숨겨진 사회적 진실을 섬세하게 길어올린 그의 작업 세계를 되짚는다.
전시명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 **전시 기간** 7월 16일~10월 18일 **전시 장소**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이미지 제공_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수집: 결정의 방〉

부산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빌 비올라, 송상희, 문경원+전준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20여 명(팀)의 작품을 통해 수집 시스템을 드러내는 전시. 또 아직 소장되지 않은 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무엇을 미래에 남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관람객과 함께 고민하는 공공의 장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부산현대미술관 다원예술_몸, 실험 중〉, 〈소장품섬_몸의 증언: 김순기·아나 멘디에타·크리스 버든〉, 〈코뿔소와 유니콘〉 등이 7월 말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7월 19일까지 **문의** busan.go.kr/moca



샘 징크스, '여성과 아이(Woman and child)', 2010, Silicone, silk, human hair, acrylic, nylon, timber, polyurethane foam, 145×40×40cm. 주최: 울산시립미술관, 주관: 주식회사 우인

울산시립미술관 〈가장 완벽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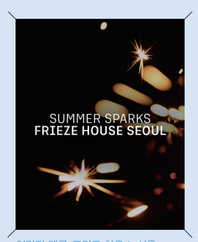
극사실주의 작가 13인의 회화와 조각 1백여 점을 선보이는 하이퍼리얼리즘 전시. 샘 징크스, 카즈 히로, 로빈 일리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하며, 피부 질감과 털 한 올까지 정교하게 재현한 작품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탐구한다. 한편 8월 2일까지 〈동행(同行): 아이와 보는 미술〉, 7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동 기획전 〈팬레터〉 등도 더불어 열린다.
전시 기간 7월 2일~10월 5일
문의 ulsan.go.kr/s/uam



이미지 제공_종로구

김창열 화가의 집 〈김창열, 물방울의 흔적〉

김창열 화백이 2021년 작고할 때까지 실제로 거주했던 평창동의 작업실을 개조해 설립한 공공 문화 시설 '김창열 화가의 집' 개관전으로, '종이'를 매개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시기별로 조망한다. 완성작뿐 아니라 밑 작업 과정도 함께 전시해 유추하는 재미를 더하고, 지하에는 작업실을 고스란히 재현해 김창열 화백의 예술 세계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전시 기간 8월 23일까지 **문의** 02-6951-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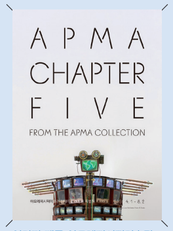
이미지 제공_프리즈 하우스 서울

프리즈 하우스 서울 〈Summer Sparks III: Fl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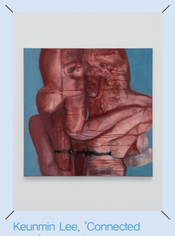
지난 5월 말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전시 시리즈 'Summer Sparks'의 마지막 주자 〈Summer Sparks III: Flare〉가 개최된다. 한 라운드당 5개의 갤러리가 참여해 2주 동안 전시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기획전이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공간부터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갤러리, 새롭게 부상한 예술 공간 등 다채로운 특성의 갤러리 15곳이 참여해 한국 동시대 미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마지막 라운드에는 오케이앤피, 갤러리박, 에브리데이 몬데이, 드로잉룸, 에브리아트가 참여한다.
전시기간 7월 9일~22일
문의 frieze.com/ko/frieze-house-seoul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APMA, CHAPTER FIVE – FROM THE APMA COLLECTION〉

미술 애호가들에게 호응을 얻어온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소장품 특별전이 돌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키키 스미스, 로즈 와일리, 캐롤 보브, 갈라 포라스-김 등 주목받는 동시대 해외 작가와 백남준, 이불, 양혜규, 이우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20여 년 만에 미술관에서 최초 공개한 백남준의 대작 '절정의 꽃동산(TV Vertical Flower)'과 양혜규의 신작 '겹쳐진 모서리 – 환기하는 주황과 파랑의 사각형' 등을 비롯해 도널드 저드, 얼마 전 작고한 데이비드 호크니 등 해외 거장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8월 2일까지
문의 apma.amorepacific.com



이미지 제공_아모레퍼시픽미술관



Keunmin Lee, 'Connected Body', 2026, Oil on canvas, 100×1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PKM 갤러리 〈장면이 되기 전〉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구축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스페이스K 개인전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이근민이 처음으로 PKM 갤러리와 만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3m 높이의 대형 회화를 비롯한 회화와 드로잉 신작 23점을 공개했다.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과 입원 생활에서 비롯된 환각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작품은 해체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질문한다. **전시 기간** 7월 25일까지
문의 pkmgallery.com



Harry Meyer, 'GipfelWelten II', 2021~2022, Oil on canvas, 75×70cm. 이미지 제공_보데갤러리

자하미술관 〈Every Landscape Has a Face〉

풍경화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 독자적 방식으로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며 독일 현대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하리 마이어(Harry Meyer)의 개인전이 인왕산을 바라보는 자하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정상의 세계(GipfelWelten)' 연작 및 '두상(Kopf)'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실재와 관념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한다. **전시 기간** 7월 19일까지
문의 zahamuseum.org



이미지 제공_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미학〉

과장된 비례와 볼륨,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정서가 깃든 풍부한 색채로 유명한 콜롬비아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1932~2023)의 대규모 전시. 작가 사후 첫 국내 회고전으로 1970년대 이후 보테로 특유의 조형 언어가 확립된 시기부터 말년에 이르는 작품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유화와 드로잉, 조각 등 총 1백12점의 작품을 통해 약 60년에 걸친 그의 예술 세계를 살피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어떻게 완성되고 발전해왔는지 엿볼 기회다.
전시기간 8월 30일까지 **문의** sac.or.kr
글. 크레딧 정리_**양혜연**(객원 에디터)

Remember the EXHIBITION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익숙한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창이다. 올여름에도 전국 곳곳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는 조선시대 거장 김홍도부터 페르난도 보테로, 그리고 동시대 한국 작가들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무대로 삼은 예술가들의 개인전이 잇따라 펼쳐진다. 여기에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하이퍼리얼리즘 그룹전, 소장의 의미를 되묻는 기획전, 한국 개념 미술의 흐름을 조명하는 전시도 더해진다. 서로 다른 질문과 감각으로 채운 전시는 관람객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다층적 관점을 선사한다.



이미지 제공_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조선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주제전. 대표작 '단원풍속도첩'을 비롯해 '기로세련계도', '총석정도', '노매도' 등 전성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명작 50건 96점을 공개했다. 연계 전시로는 회화 1실에서는 김홍도와 그의 스승이자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벗이었던 강세황의 교류를 보여주는 작업, 회화 3실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채색 장식화와 민화, 서예실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명필의 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고고, 역사, 미술, 민속을 아우르는 융합 전시 〈우리들의 밥상〉도 진행 중이다.
전시 기간 8월 2일까지 **문의** 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

한국현대미술에서 개념 미술이 전개된 흐름을 조명하는 기획전. 작품 1백40여 점과 아카이브를 통해 1960년대 말 실험 미술부터 1990년대 이후 개념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펴본다. '언어·논리·행위', '사물과 언어', '지도와 측정', '기호의 조정자들'이라는 4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는 개념 미술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기보다, 작품마다 지닌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MMCA 과천에서는 〈로드 무비: 1945년 이후 한·일 미술〉, 청주에서는 〈방혜자 – 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가 진행 중이며, 서울에서는 오는 7월 24일부터 〈올해의 작가상 2026〉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기간 10월 11일까지 **문의** mmca.go.kr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COCO CRUSH NECKLACES AND EARRINGS IN BEIGE GOLD
OR WHITE GOLD, WITH OR WITHOUT DIAMONDS

COCO CRUSH

CHANEL

FINE JEWELRY